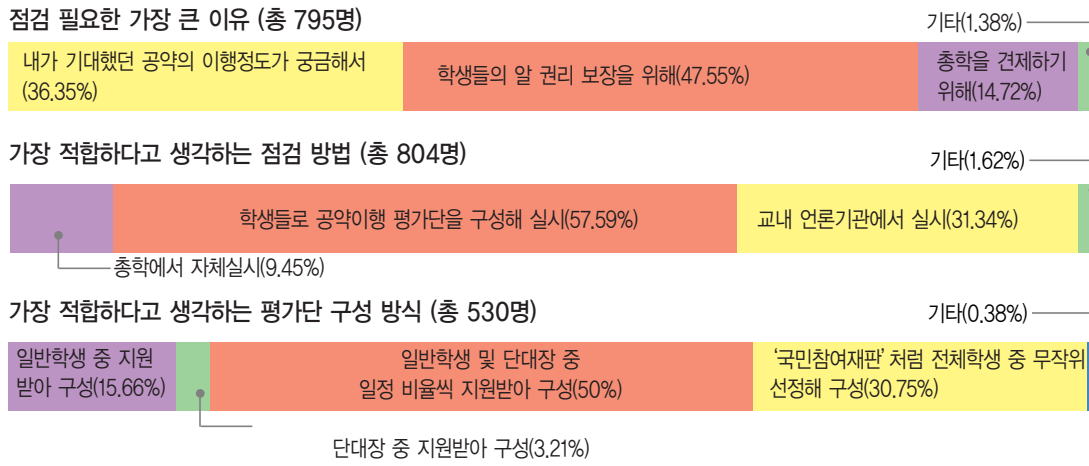


## 처음 그 약속, 변하지 않았나요?

### “총학생회 공약이행 점검 필요하다”



‘총학생회 공약이행 점검에 관련한 설문조사’  
기간 2012. 09. 10(월) ~ 13(목), 4일 간  
대상 및 응답인원 양 배움터 학부생 / 804명

\*본 설문조사는 양 배움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를 함께 실시해 양 배움터의 각 응답인수는 알 수 없음.

우리학교 양 배움터 총학생회(이하 총학)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서울배움터 제46대 총학 ‘HUFS n YOU’는 지난 3월 29일(목), 글로벌캠퍼스 제33대 총학 ‘새판짜기’는 지난해 12월 8일(목)에 당선돼 지난 12월 31일(월)로 임기가 끝난다. 선거당시 서울배움터 총학은 △등록금 인하 △분·분교통폐합 문제 재논의 촉구 △학사제도 개선 △학생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공약을 내걸었고, SNS를 통해 활동 보고를 하고 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은 △등록금 및 기숙사비 인하 △장학금 확충 △치안 취약지역 관리 등의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이행 보고와 교내 소식지 배부활동 등을 진행해오고 있다.

양 총학이 내걸었던 공약들의 이행 점검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본지는 지난 달 양 배움터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응답자의 98.88%가 ‘총학생회의 임기 중 공약이행 점검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이 중 47.55%가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을 가장 큰 이유로 생각했다. 김진원(동양어·아랍어 06)은 “공약이행 평가는 학생이 유권자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라며 공약이행 점검의 필요성을 말했다. 공약이행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7.59%가 학생들로 이뤄진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꼽았다. 평가단원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일반학생 및 단대장들을 대상으로 각각 일정 비율씩 지원받아 선출하는안을 선택했다.

공약이행 점검에 대한 학생들의 강한 요구에 대해 정성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학은 따로 평가를 해줄 견제기구가 없어 우리가 학생들의 뜻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당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들에 의한 공약이행 점검은 당연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였다. 반면 이현성(동양어·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서울배움터 총학과 글로벌캠퍼스 총학은 서로 같은 체제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서울배움터 총학과 글로벌캠퍼스 총학을 한데 묶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다음주에 양 배움터를 구분해 설문조사를 재실시해 공정성을 더욱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공약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공약은 학생들과의 약속이기에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학생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매우 중요하다”며 “학생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으로부터 중간 점검을 받는 과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지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 배움터 각각 ‘총학생회 공약이행 평가단’ 이하 평가단을 모집해 총학에 대한 공약이행 점검을 따로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외대학보사 주관 하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번 달 10월 한 달 동안 활동한다. 평가단원은 총학임원들을 제외한 일반학생 및 단대장들을 7:3의 비율로 지원받아 각 배움터 학부재학생수에 비례해 구성된다. 이들은 총학생회의 △공약이행 정도 △공약 관리에 대한 책임성 △공약이행 관련 정보의 신뢰도 △납은 임기중간의 이행계획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단원들은 외부 전문가의 교육과 함께 총학으로부터 공약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분과를 나눠 평가를 진행한다. 이후 최종적으로 공약이행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양 배움터 전체학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평가단에 대한 자세한 구성방식, 활동내용 및 혜택은 곧 △교내 게시판 △외대학보 홈페이지 △외대학보 페이스북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다.

김경보·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꿈”의 신본관 드디어 착공

2천여명 수용 가능한 7천여평 규모  
‘글로벌 랜드마크’ 2014년 완공



▲ 완공 후의 다목적관 조감도.

글로벌캠퍼스 대운동장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본관이 건설된다. 신본관은 이번 달부터 착공하여 2014년 중순 경 완공될 예정이다. 2천여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이 건물에는 △대강당 △연구실 △국제적 수준의 세미나실 △휘트니스 센터 등 안락하고 쾌적한 연구기관과 복지시설이 들어선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개발실 △정보 검색실 △노트북 열람공간 등 학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열람공간도 확충된다. 특히 신본관은 글로벌캠퍼스의 중심에 위치해 다른 건물로의 이동도 빠르다.

이에 대해 광대민(동번역·영동 12)은 “도서관 이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다른 장소나 열람실이 부족해 때때로 강의실을 찾아 사용했다”며 “신본관이 완공되면 무엇보다 열람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박창수 중국어통번역학과 교수 또한 “지금 강의실이 부족하고 교수 교무실도 시설이 부진하다”며 “하루빨리 신본관이 완공돼 학생들에게 더 좋은 강의환경을 제공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신본관 건설은 많은 학교 구성원들의 기대를 안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신본관 공사기간 중 대운동장의 대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임정수(국스레 08) 국제스포츠레저학부 학생회장은 “대학생에게 학업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포츠를 통한 체력 증진도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지훈(동번역·중통 12)은 “축구 동아리에 가입한 직후 운동장이 축소돼 유감”이라며 “적어도 일주일에 3번은 축구경기를 해야 하는데 학교가 적어도 정규 규격의 축구장은 따로 개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송주환 글로벌캠퍼스 건설기획팀장은 “신본관 착공으로 인해 줄어든 운동장에 대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기숙사 앞 공터에 운동장을 신설하는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기숙사는 학생 주거 공간이기에 소음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예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박준서 기자 86jspark@hufs.ac.kr

### 지면안내

2 나침반 없는 외발추의 운명은?

3 한 시간 대여료 60만원, 미네르바 오디오리움

6 자취촌에 드리운 치안의 그림자, 실태는?

7 “내 수업은 내가 만든다” 교양강좌의 반란

12 MBC 예능의 대가  
안우정 대표이사



##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은 끝나지 않았다

국·부장 고정칼럼

▲본지는 지난학기 946호에서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거죠”-더 나은 학교를 위해, 매니페스토 운동’이라는 기획기사를 발행했다. 선거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한지, 지속 가능한지를 찬찬히 따져보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기사였다. 3월 말에 예정돼 있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 선거일정에 맞춰 예비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이 공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본지는 이 기획기사를 준비하고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양 배움터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9명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의견을 모아보았다. 그 결과 당시 대다수 학생회장들이 매니페스토를 적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현성 총학생회장은 “매니페스토의 전면적 적용은 힘들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천의지를 보였다.

▲시간이 지나 2학기가 시작됐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어떤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그 당시 예비 후보자였던 서울배움터 총학생회는 매니페스토 운동의 취지처럼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공약을 만들었을까. 공약 이행 점검의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번에는 양 배움터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803명 중 794명이 “양 배움터 총학생회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 배움터 학생들이 설문조사 대상자였기 때문에 서울배움터 학생,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이 각각 몇 명씩 응답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움터의 구분을 떠나 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에 대한 공약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응답자의 98.88%라는 절대적 수치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총학생회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한 학교 안의 학생단체들을 통틀어서 지휘하는 학생들의 자체단체’라는 풀이가 나온다. 바꿔 말하자면 한 학교안의 모든 학생들을 대표하는 것이 총학생회라는 뜻이다. 총학생회는 학생들과 항상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 정

책에 반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 바로 당선 당시의 공약을 학생의 의견에 따라 수정, 변경하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후보가 공약을 만드는 과정 뿐 아니라 당선 후에도 유권자와 상시 소통하며 공약을 실천하는 매니페스토 정신으로 이어진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공약이행 점검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았던 것은 총학생회에게서 매니페스토 정신을 느끼고 싶었던 학생들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본지는 이번호에 위에서 언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약이행 점검의 필요성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하지만 공약 점검을 촉구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양 배움터 총학생회 선거 이전에 발행될 955호에 공약 평가결과를 실기 위해 준비중이다.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총학생회의 공약 평가결과를 보고 다음 총학생회 선거에 나올 예비 후보자들과 그들을 뽑을 유권자들이 서로 원활히 소통해, 학교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편집장

학내 브리핑

어문관식당, 바뀐 운영시간 알아주세요!

글로벌캠퍼스 어문관 학생식당의 한식/양식코너 운영 시간이 변경됐다. △신축 기숙사 입주로 인한 일일평균 식수 감소 △일일 이용자의 약 90%가 점심시간(11:30 - 13:30)에 편중 △1500 이후의 실질적 이용 전무가 그 이유다. 한편 △분식 △매점 △카페의 운영시간은 변동 사항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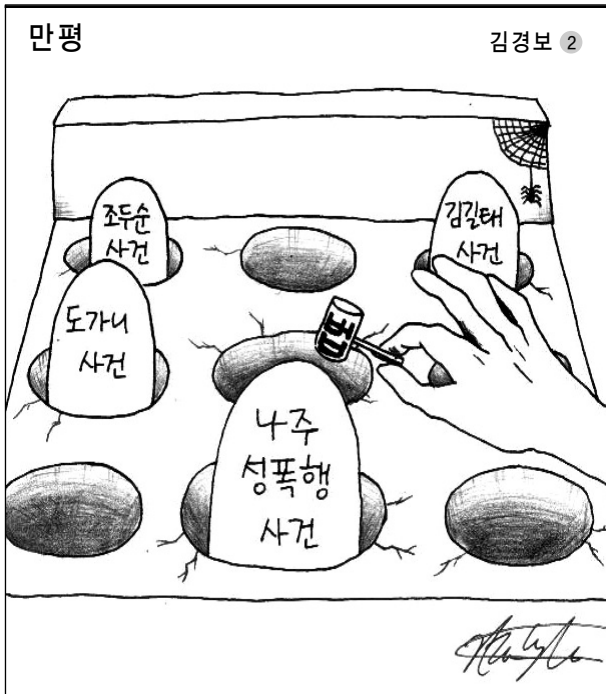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한식/양식	10:00 - 17:30	09:00 - 15:00
분식/매점/카페	09:00 - 17:30	기준과 동일

이번 학기 시간표 마지막 정정기간

이번 달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양 배움터 학부생은 수강신청 취소를 할 수 있다. 수강신청 취소는 5일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가능하며 우리학교 홈페이지 Hot Link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단, 4학년을 제외한 학년의 학점은 취소 후 12학점 미만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잉글리쉬존 참여 하세요

이번학기 글로벌캠퍼스 진로개발세미나 2학년 수강생은 학과 교수님과의 면담이외의 잉글리쉬존을 3번 방문해야 한다. 잉글리쉬존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어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장소는 어문관 2층과 공학관 2층에 마련돼 있으며 매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3시 20분 까지 원하는 시간에 방문해 한 시간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우리학교의 도약, 국내를 넘어 세계무대로

## QS 세계대학평가에서 300위권 진입

우리학교의 괄목할 성장이 거듭되고 있다. 영국현지 시간으로 지난 달 11일(화)에 영국대학 평가기관 'Quacquarelli Symonds' (이하 QS)에서 발표한 '2012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학교가 세계 전체 대학 중 354위를 차지했다. 이는 400위권 안에 기록된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국내 11개 대학 중 10위에 해당하는 순위이다.

이번 대학 평가는 △학계 평가(Academic Record) △졸업생 평가(Employer Reputation)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 평가(Citation Per Faculty) △외국인 교수 수(International Faculty) △외국인 학생 수(International Students) △교수 1인당 학생 수 평가(Faculty Student)로 총 여섯 부문 기준을 적용해 전체 700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상위 400위 대학까지 선정했다. 우리학교는 각 분야에서 △19.6 △70.3 △1.7 △51.0 △36.2 △71.0의 점수를 기록

했다. 우리학교의 학계평가와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지수는 저조했으나 졸업생 평가와 교수 1인당 학생 지수는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기록을 남겼다. 또한 여섯 부문의 비율을 반영해 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34.1점으로 세계 354위를 기록했다.

우리학교 평가감사팀 최효영 팀장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학교가 300위권으로 도약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피인용 지수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학교가 국내에서 등재 논문이나 저명 학술지에 인용되는 수준은 최고지만 아직 국제적으로는 만족스러운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하며 "학교에서 이러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어 더 큰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2012년 세계대학 평가 (QS는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 기관)

2012 세계대학평가 국내대학 순위	대학명
1	서울대(37)
2	카이스트(63)
3	포스텍(97)
4	연세대(112)
5	고려대(137)
6	성균관대(179)
7	한양대(249)
8	경희대(270)
9	이화여대(341)
10	한국외대(354)
11	서강대(391)

(0는 세계대학 순위)

## 외발추 위원장, 결국 사퇴

집행부의 독단적인 해산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하 외발추장이 지난 달 5일(수) 총학생회실에서 진행된 운영위원회에서 자진사퇴의 뜻을 밝혔다. 외발추장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참석한 운영위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신옥하(경영·경영 07) 외발추장은 지난 4월 공개 경선을 통해 선출됐다. 하지만 △선출된 뒤 자신의 임기기간동안 외발추의 공식적인 활동을 추진하지 않은 점 △집행부원에 대한 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원들을 독단적으로 해산한 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장학금을 집행한 점 △장학금 수혜대상이 아닌 학생이 대리로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한 점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외발추장은 사퇴할 것 △

외발추에게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할 것 △학생들에게 이번 일에 대해 알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 이 세 가지이다.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한 명은 "지난 경선에서 큰 표차로 외발추장에 선출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자진사퇴의 뜻만 밝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발추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약속한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공개사과문 게시 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난 달 20일(목)에 열린 전학대회에서는 외발추장이 지난 달 24일(월)까지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최후통첩을 보내기로 했다. 또한 외발추장이 이 시기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서 또는 이행 촉구서를 게시하기로 결정했다.

양재상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 흡스돔이 특별한 이유? 주거공간에서 만나는 매력강좌

"메이크업과 운동 강좌를 아침에 배정해 학생들이 최상의 상태로 수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요" 김원희 i-외대 사업본부장의 아쉬운 말이다.

지난 달 19일(수)부터 26일(수)까지 글로벌캠퍼스에서 '흡스돔(HUFS Dorm) 기숙교육 프로그램'의 수강신청을 받았다.

강좌는 △DSL.R카메라 △메이크업 △드로잉(소묘) △트레킹(trekking) △통기타 △요가(여학생) △필라테스(여학생) △휘트니스 등 총 10개가 개설됐으며 글로벌캠퍼스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일정은 글로벌캠퍼스 흡스돔 내에서 오전 7:00-8:30, 오후 7:00-8:30에 진행된다. 황경영 i-외대 운영팀 차장은 "실력있는 외부강사들을 영입해 학생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의 강좌를 들으면 과목 당 특별교양영역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수강 강좌수에 상관없이 한 학기에 최대 2학점, 재학생에는 최대 4학점까지 인정된다. 단, 졸업예정자와 8학기 등록자는 학점인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수강료는 강좌에 따라 △120,000원 △150,000원 △200,000원으로 책정됐다. 김원희 i-외대 사업본부장은 "이 프로그램으로 수익이 남는다면 전액을 기숙사 사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을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좌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꿈과 희망, 소재와 에너지로 더 나은 세상을!

### 포스코가 들려주는 소재와 에너지 이야기

**힘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철강부산물 → 철을 만들고 난 부산물로 친환경 탄소소재를 만들어요~

**더 가벼운 미래 자동차도?**  
포스코 만드는 경량강판과 마그네슘(Mg)과 친환경 에너지 소재 리튬(Li)으로 미래자동차가 색색색~

**제철소가 발전도 된다!**  
철을 만들며 발생하는 가스도 버리지 않고 전기를 만들어요

**우리 동네에도 미니발전소도!**  
우와~ 포스코 연료전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우리 동네가 더 깨끗해 지겠구나!

**1세대 에너지도 역시, 포스코**  
글로벌 TOP 소재·에너지 산업의 꿈과 희망을 함께!

**꿈과 희망이 자란다  
소재와 에너지로 자란다**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전하고 싶은 꿈과 희망으로 철강을 넘어 소재와 에너지로 내일을 키워갑니다. 모두가 함께 자라는 더 나은 세상, 포스코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osco**  
아는 만큼 가파워집니다.

# 규모와 내용 모두 풍성해진 취업박람회

##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취업박람회의 모든 부스가 북적거릴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 달 4일(화)과 5일(수)에 걸쳐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 취업박람회(Global Job Fair)가 열렸다. 지난해 국제학사 식당에서 비교적 협소하게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해는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학생들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인재채용의 기회 제공이라는 행사 취지에 알맞게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의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졸업한 동문의 취업관련 특강이 진행됐다. 또한 △임사지원서 클리닉 △뷰티 메이크업 클리닉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부스도 준비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임이랑(동양어·아랍어 07)양은 “당장 취업하기 위해서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기업들의 특징과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저학년 때부터 취업박람회에 참여해 관심분야에 대해 탐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수진(경영·경영 07)양도 “지난 해보다 기업체 수도 많아졌고 기업체 부스에 우리 학교 출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직무 이야기나 복리후생에 대한 점도 자세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자기 소개서를 쓰는 방향과 취업에 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기업 △공기업 △외국계 기업을 포함해 101개 기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역대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참여기업 중 선택표식품 원정혜 담당자는 “당사의 해

외진출을 준비하고자 글로벌 역량을 갖고 있는 사원을 선발하기 위해 참여했다”며 “학생들에게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설명과 실질적인 업무이야기를 많이 해 좋은 인재를 발굴해 가려 한다”고 밝혔다.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취업박람회에 대해 김현숙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팀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20%~30%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기업에 대한 유용한 기업 정보를 얻어 갔다”며 “우리학교의 더 많은 학생들이 미래 커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경력개발센터의 경력관리 등의 취업지원 업무를 활용해 졸업 후 원하는 분야로 취업을 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 도학위의 일정조정, 혼란스러운 학생들

서울배움터 도서관학생위원회(이하 도학위)가 예정한 공지보다 하루 앞당겨 도서관에 있는 사물함을 철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도학위는 지난 달 12일(수) 점심시간과 오후에 걸쳐 도서관 지하와 3층에 있는 사물함을 철거했다. 하지만 도학위가 사물함을 사용하던 학생들에게 공지한 사물함 강제 철거 일정은 그 다음 날인 13일(목) 오전이었다.

학생들은 도학위의 이른 철거작업에 불편을 호소했다. 의견을 요구한 한 학생은 “도학위 측에 당시 진행되는 상황을 물어봤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도학위 활동을 하고 있는 김정수(서양어·프랑스어 08)군은 “도학위 위원은 공식적으로 2명 뿐이라 1500개 가까이 되는 사물함을 분배, 철거하려면 작업을 일찍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철거 작업이 공지보다 일찍 진행돼 피해입은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함께 활동하는 전세원(서양어·프랑스어 09)군은 “업무 진행을 미리 해 중간고사 이전에 학생들이 편하게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했다”며 “급하게 처리하려한 만큼 공지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이해를 부탁했다.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도학위** 학기 초 사물함 배정과 학기 말 사물함 철거 작업을 담당하고 학기 중에는 도서관 사석화 방지작업을 하는 학생자치 기구.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다음 달 5일(금)부터 7일(일)까지 사석화 방지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 “비(非) 운동선수도 같이 놀자” 2012 아시안 게임

여느 체육대회와는 달랐다. 운동장 안에는 축구공을 차는 학생들이, 운동장 바깥에서는 펀치 기계를 치는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는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지난 달 10일(월)부터 14일(금)까지 열린 동양어대 체육대회인 ‘2012 아시안 게임’이 열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지난 해 열렸던 ‘2011 아시안컵’과는 달리 이어달리기 종목이 추가됐다. 또한 동양어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가위바위보왕 △펀치왕 △펀치여왕의 개인전(個人戰)도 열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의 종합우승은 △여자 발야구 1위 △남자 축구 2위 △이어달리기 3위를 차지한 몽골어과가 가져갔고, 터키어과와 인도어과가 그 뒤를 이었다. 우승을 차지한 몽골어과는 지난해까지 모든 종목에서 단 일승도 거두지 못했기에 이번 결과의 의미가 더 컸다. 개인전에서는 △펀치왕에 이동열(동양어·마인어 11)군 △펀치여왕에 이지혜(동양어·몽

골어 09)양 △가위바위보왕에 윤덕영(동양어·터키어 12)군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가위바위보를 열두 번 연속 이긴 윤덕영군은 “이번 개인전은 축구나 발야구처럼 따로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참여가 가능했고, 운동선수로 선발된 학생만으로 한정된 게 아니라서 신선한 이벤트였다”고 말했다.

아시안 게임의 단체전 상품으로는 △컴퓨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이, 개인전 상품으로는 통일부대찌개 식권, 휴대폰 충전기 등이 준비됐다. 개인전 시상식은 지난 달 25일(화) 6시 동양어대 체육관 추대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이유나(동양어·몽골어 09) 동양어대 학생회장은 “날씨도 덥고 운동장 상태도 좋지 않았음에도 기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동대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전했다.

임채운 기자 86healing@hufs.ac.kr



▲김민아(동양어·몽골어 12)양이 발야구 경기에서 공을 힘껏 차고 있다. 김민아 양이 속한 몽골어과는 발야구에서 1위를 차지했다.

#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강당

## 대강당 사용료 비싸, 학생 이용 사실상 어려워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은 좁은 학교부지에 대한 대안으로 지어진 서울배움터 지하캠퍼스 내의 대강당 시설이다.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은 최대 1900여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으며 △학회에서 열리는 포럼 △대형 강연 △대형 공연 및 행사 등의 용도로 이용된다. 그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교 내 강의실이나 소형 강당과는 달리 높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싼 사용료는 학생들의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장벽이 되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지 우리학교 대강당 사용료와 타 대학의 대강당 사용료를 비교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 ◆ 학생 이용 없는 미네르바 오디토리움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이요? 거기 대관료 비싸요” 조봉균(사회·정의 10)군은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 대해 묻자 난색을 표했다. 그는 “학회 포럼을 진행할 큰 공간이 필요해 대강당 대관료를 문의했는데 전기료와 냉·난방비 요금이 한 시간 단위로 책정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조봉균 군 뿐만이 아니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대강당 대관 비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과연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의 사용현황과 사용료는 어느 정도일까.

총괄지원팀에서 제공한 서류에 따르면 이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은 △3월 사용안함 △4월 총동문회행사, 오바마 대통령 연설 △5월 EBS 입시설명회, 통번역대학 국제기구 진행설명회 △6월 학부·통번역대학 입시설명회 △7월 국·공립 고등학교 교장연수, 입학사정관제 설명회 △8월 졸업식 △9월 취업박람회 정도가 전부다. 즉 학생의 ‘자치적 대강당 사용’은 전무한 채 최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한 달에 한, 두 번 꼴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학생들의 사용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에게는 대관료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교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관료는 받지 않지만 한 시간당 전기료 10만원, 냉·난방비 50만원의 가

	우리학교	성균관대	이화여대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
대관료	X	300만원	200만원	X	X	X
전기료	10만원	0	X	X	10만원	X
냉,난방비	50만원	0	30만원	15만원	X	X

▲ 5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각 학교 대강당을 대상으로 조사함.

격을 매긴다. 예를 들어 우리학교 학생이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3시간 동안 학회 포럼을 진행 할 경우 최대 180만원의 비용이 든다. 학생들이 부담하기에는 한없이 높은 비용이다. 실제로 우리학교 락 밴드 동아리 ‘외인부대’의 부원인 홍준하(법·법 07)군은 “4월 달에 미네르바 오디토리움에서 락 밴드 공연을 하려 했으나 한 시간에 60만원이라는 공지를 받고 빌리려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 ◆ 타 대학 대강당 사용료도 비싸긴 마찬가지

비싼 사용료 문제는 비단 우리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 내의 사립대학들을 대상으로 미네르바 오디토리움과 비슷한 규모의 대강당 시설들의 사용료를 조사한 결과 △우리학교 △성균관대 △이화여대에서 높은 수준의 대관료를 매기는 실정이었다. 성균관대의 새천년홀은 학부생이 하루 대관할 시 △

대관료 300만원 △전기료 △냉·난방비 모두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 이화여대의 경우 대관료가 기본 4시간에 200만원이었고 이 후 한 시간 초과 당 2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냉·난방비도 기본 1시간에 30만원이었으며 이 후 한 시간 초과당 13만원씩 내야 했다. 특히 이화여대 지하캠퍼스 내에 있는 이상봉홀 사용료는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대강당 시설을 담당하는 이화여대 관계자에 따르면 “비용이 비싸서 과동문화나 큰 공연 외에 학부생들끼리 진행할 만한 포럼이나 세미나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히며 “대여를 권장하지 못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냉·난방비가 유독 비싼 것에 대해서도 “전기료가 실제로 그 정도 나오니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학교 역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총괄지원팀 이재명 팀장은 “학교 측에서 이유를 납기려고 책정한 금



▲ 우리학교 미네르바 오디토리움 전경

액이 아니라 순전히 냉·난방에 필요한 전기료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사용료를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 ◆ 합리적 대관 제공하는 대학 사례도 있어

그러나 학생에게 합리적으로 대강당을 대관해 주는 연세대나 경희대, 고려대와 같은 학교도 존재한다. 특히 고려대는 학부생의 복지와 교육의 편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관료 △전기료 △냉·난방비 없이 무료로 서관 앞 대강당을 대관해준다. 고려대학교 학생지원팀의 관계자는 “강의실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대강당도 무료로 대관해 준다”며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당연히 무료여야 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정상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총회에서 총장면담을 할 경우 ‘교내 시설 무료 이용’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진아 기자 86jinh@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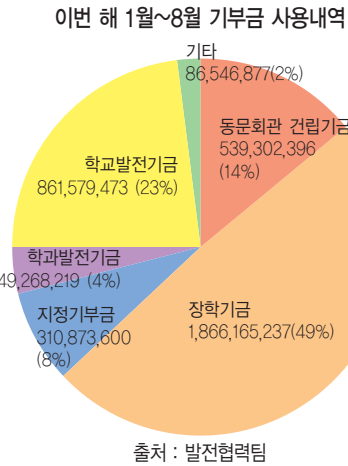
# 기부금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동문의 후배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순간까지

해마다 동문들을 비롯한 수많은 개인 및 단체에서 우리학교에 기부금을 전달 하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는 학생들은 누가 기부하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모르고 있다. 김진원(동양어·아랍어 06)군은 “학교에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소식은 많이 접했으나 그 기부금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발전협력팀의 기부금 담당자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기금을 △학교발전기금 △학과발전기금 △교수연구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국제교류기금 △장학기금 등 종류별로 분류해 각 분야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 우리 학교의 기금이 사용되지만, 과연 기부자나 학생들에게 기금의 사용내역이 공개 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도 있었다. 최준영(통번역·태국어 07)군은 “우리학교가 기부금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부금 관리담당자는 “기부자가 돈을 기탁할 때 기부금의 목적을 학교 측에 알리기 때문에 기부자의 뜻에 어긋나도록 기금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며 “기부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학교에서는 기부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기 전 기부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고 있



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사용내역이 공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사용내역을 요청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재상·김계선 기자 86haveaniceday@hufs.ac.kr

# 독서의 계절 가을, 서울배움터 도서관 시상식 이어져

지난 달 18일(화)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실에서 다독자 및 모의 토익/토플시험 성적우수자 시상식이 진행됐다. 두 시상식은 매 학기마다 열리며 각각 최다 대출 권수와 최고 득점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번에는 다독자 상 부문에서 1등 1명과 2등 7명, 토익/토플 모의시험 성적우수자 부문에서 1등 1명, 2등 4명이 선정된다.

다독자 상은 대출 도서수 159권으로 가장 많은 책을 읽은 최지윤(대학원·국어교육학 10)양에게 돌아갔다. 최양은 “평소 고전과 한국문학을 좋아해서 매일 책을 읽었는데 다독자 상까지 받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모의 토익/토플우수자 시상식에서는 조

정현(경영·경영 09)군이 모의 토익 9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토익 시험을 준비했다”며 “모의 테스트를 통해 시간분배 연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성철 서울배움터 도서관장은 “미국 명문대의 경우 필수고전목록을 만들어 책을 읽어야만 졸업을 하는 규제가 있을 정도로 고전과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학교 학생들도 인문학 도서와 고전을 많이 읽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식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독자 시상식은 지난 달 27일(목)에 도서관장실에서 실시됐다.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 2013학년도 전기 (1차·2차) 신입생 모집

창의적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국제지역학 전문대학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1차전형	접수: 2012. 10. 02(화) ~ 10. 09(화)
2차전형	접수: 2012. 11. 05(월) ~ 11. 09(금)

문의처  
TEL : 02)2173-2448, 2449, 2434  
FAX : 02)2173-3369  
E-Mail : hufsgsias@hufs.ac.kr  
http://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3학년도 전기 석사·박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13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	합격자발표	등록기간
특별전형	9.24(월)~9.28(금)	10.13(토) 10:00	10.25(목) 14:00	10.29(월)~11.2(금)
일반전형	11.5(월)~11.9(금)	11.24(토) 10:00	12.6(목) 14:00	12.10(월)~12.14(금)

### 2. 지원자격

#### 가. 특별전형

- 1) 석사: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료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료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나. 일반전형

- 1) 석사: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3

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모집요강”→“입학원서작성 바로가기”) 인터넷 원서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

###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 5.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한국외대 출신자, 성적우수자, 외국인 유학생)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s](http://www.hufs.ac.kr/grs) 참조
- 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earTHome

# 학식으로 세계 한 바퀴

국내 여러 대학 가운데서도 맛있고 저렴한 학식으로 유명한 우리학교. 학식에서 점심을 먹다보면 맛있게 식사를 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종종 눈에 띈다. 그들의 고향에서는 어떤 학식이 나올까. 우리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 세계의 학식을 탐방해보자. **편집자주**



▲일본, 미야베 토모코(Miyabe Tomoko), 교환학생

**일본 대학생들은 학식을 많이 이용하나요?**

저는 외대에 오기 전, 메지로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일본 대학생들은 주로 도시락을 많이 싸서 다녀요. 혹은 편의점에서 간편 도시락이나 음식을 사와 강의실에서 식사를 해결할 때도 많답니다. 이를 위한 편의점 전용 충전카드도 있고요.

**일본학생들은 학식보다는 도시락이나 편의점 음식을 자주 찾는군요. 혹시 일본학생들의 도시락 대표 메뉴가 있다면요?**

주로 밀반찬으로는 계란말이, 소시지, 햄버거스테이크를 많이 먹고, 샐러드 같은 '사라다파스타'라는 것을 작은 통에 따로 준비해 많이 먹습니다.

**우리학교 학식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일본 대학교의 학식은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우동 한 그릇이 약 400엔(한화 약 5800원)인데 이에 비해 외대의 학식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놀랐어요. 하지만 일본 학식은 가격 대비 양이 적은 대신 메뉴가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지요.



**터키의 학식에는 무엇이 주로 나오나요?**

저는 외대에 오기 전 터키의 앙카라대학교에 다녔는데, 터키에서 학식은 대체로 스무프 스테인메뉴 △샐러드 △후식(전통디저트 혹은 과일)으로 구성됩니다. 메인메뉴에는 고기와 야채가 꼭 나오니까요. 수프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메리저릭 초르 바스'라는 수프가 대표적이예요. 또한 빵을 주식으로 하는 터키 특성상 학식에



서는 빵을 원하는 만큼 무료로 가져다 먹을 수 있습니다. 식탁에는 각종 소스와 향신료들이 구비되어있고요. 터키는 음식의 종류가 다채로워 학식의 메뉴도 다양하답니다.

**우리학교 학식과 비교해봤을 때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외대 학식은 가격이 항상 변함이 없는데 비해 터키 학식은 가격변동이 잦습니다. 외대 학식은 정말 맛있으면서도 저렴해서 자주 이용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무슬림이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외대 학식에서 돼지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나오면 대체할 메뉴가 없어 아쉽습니다.



▲터키, 파트마 굴사 발타즈 (Fatma Gülsah Baltacı),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대만, 정리방(Cheng Li Fang),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조교수

**중국 가정에서는 아침 식사로 죽을 많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중국의 학생식당에서도 죽이 나오나요?**

네, 학식에서도 죽을 많이 먹어요. 죽 외에도 △중국식 두유인 또우장 △바삭한 밀가루 튀김 요우티아오 △중국식 만두국 훈툰 △화덕에 밀가루 반죽을 붙여서 구운 사오뎡 등의 다양한 음식들이 아침식사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처럼 중국 학식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중국은 지형이 커서 각 지방마다 특색있는 요리와 특산물이 있기 때문에 김치처럼 고정적인 반찬은 없습

니다. 다만 보통 식당에서는 땅콩, 무말랭이, 오이무침 등이 자주 나와요.

**중국 대학생들이 학생식당에서 밥 대신 자주 먹는 간식거리는 무엇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간식 종류가 다릅니다. 북방 지역에서는 전병 등의 전통 간식을 자주 먹어요. 반면 남방 지역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과자, 빵을 좋아해요.



**미국의 학식이 한국의 학식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확실히 음식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인들을 배려한 식단이 나오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너가 따로 있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의 학식은 한국의 학식과 달리 대부분 뷔페 시스템이라 먹고 싶은 음식을 덜어 나중에 음료수와 함께 계산해요.

**학식에 대해 기억나는 대학생 시절 일화가 있나요?**

저는 공부를 대부분 학교식당에서 했어요. 미국의 학

식당은 크기가 작지만 개인 소유의 식당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벽에 그림과 사진이 많이 걸려있고 장식이 아름다워 분위기가 편안합니다. 약간의 소음이 있어 집중이 잘되는 저에게는 공부하기에 최적의 공간이었어요. 도서관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집중이 잘 안 됐거든요.



▲미국, Scott Wayne Kines, 외국어교육센터 외국인 조교수

김경보 ·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세계 브리핑

인도, 극으로 치닫는 소매상과 세계화의 대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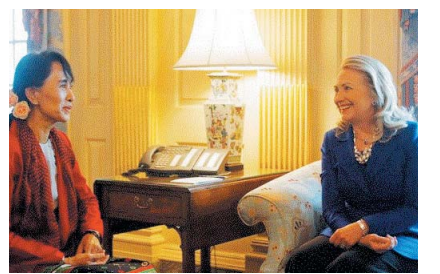
지난 달 20일(목) 인도에서 소매상권을 국제적인 유통업계에 개방하는 계획에 반대하는 정당과 유통업 조합들이 시위를 벌였다. 우타르프라데시와 비하르주에서 노동자들이 철도를 막았고 켈커티와 반파로페는 사실상 마비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통업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이 개혁이 인도의 둔화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그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보였으며 최근 연료가격이 상승하는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TV에서는 인도 북부 지방인 △페트나와 △알라하바드 △바라나시 등의 도시에서 발생한 시위현장을 보도했다. 이 날 켈커티의 동부 도시 대부분의 기능과 물류 이동은 마비됐다.



▲인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방정책에 대해 파업하고 철도를 점거한 모습

민주화 운동가 아웅산 수치, 미국 방문

67세의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가 미국을 여행하며 자신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지난 달 18일(화)에 수치가 미국 국무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웃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미 국무부의 힐러리 클린턴 사무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클린턴은 수치에게 그녀가 미국의 남부를 여행하면서 볼 수 있는 전원 풍경에 대해 얘기했다. 이번 미국 방문은 미얀마 군사 정권의 탄압에 의해 지난 20년의 대부분을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냈던 수치에게 긴 여행이 될 예정이다.



▲미국을 방문한 아웅산 수치가 힐러리 미국 국무장관과 환하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멕시코 가스 저장소 폭발사고 발생

멕시코 국영 석유회사 페멕스가 레이노사에서 가스 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페멕스의 후안 호세 수아레스 감독관은 "이번 사고가 의도됐거나 어떤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페멕스 관계자 카를로스 모르야레스는 폭발하기 몇 분전에 보수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축적이 폭발을 야기했으며 보수공사 중에 흰 불꽃이 미국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가스 저장소에 튀며 폭발을 야기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신속하게 진화에 나서 주변에 있던 거대한 가스 저장고로 불이 옮겨 붙지 않는데 기여한 소방대원들을 칭찬했다.



▲멕시코 화재현장에 투입된 소방관과 폐허가 된 마을의 모습

김정원 기자 86jeongwon@hufs.ac.kr

홈스토리 Hufstory

1화 2화 3화

권수정 기자

**한국어**

〈계속되는 우연〉

심리학 교양수업에 필요한 책을 빌리기 위해 도서관에서 책을 찾던 중 내가 찾던 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저.. 이 책 다 보신건가요?”

“어! 저랑 같은 교양 듣는 분이시죠?”

그 남자였다.

“아..그렇네요..그런데 책이 한 권 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이 책 먼저 집었는데..... 이거 어때요? 저랑 커피 한 잔 하시면 이 책 드릴게요.”



※다음호에 계속.....

**네덜란드어**

〈Voortdurende toevalligheid〉  
뵤르두르데 두발러호헤이드

Ik ben aan het zoeken naar het boek van de psychologische vormingscursus om 'ik ben an het zoeken naar het boek van de psychologische vormingscursus om

te lenen uit de bibliotheek..

떠 렌는 아헛 더 비블리오테익

En er is een man met het boek dat ik vind.

엔 어르 이즈 언 만 멧 헛 북 닷 익 빈트

Meneer, leest u het boek helemaal?

무니어르, 레이스트 우 헛 북 헤일러말?

Oh? Luistert u naar de hetzelfde college met mij?

오? 라이스터르트 우 나르 더 헛젤르더 콜레허 멧 메이?

De man is wie ik weet.

더 만 이즈 뷔 익 베잇

“Ja..dat klopt... maar er zit slechts één boek.

야.. 닷 콜로프트.. 마르 어르 쥘 스텍흐츠 ऐ인 북

Eerst heb ik dat boek gevonden.... Hoe zit het op deze manier? Als u een kopje

에르스트 헛 익 닷 북 헤븐드.... 후 쥘 헛 읍 데이저 마니어르? 알스 우 언 꼬뵤

koffie drinkt met mij, zal ik het boek aan u geven.

꼬피 드링크트 멧 메이, 잘 익 헛 북 안 우 헤이븐



**태국어**

〈เหตุการณ์ที่ต่อเนื่อง〉 <헛방윈티떠느영〉

ฉันไปที่ห้องสมุดเพื่อยืมหนังสือที่ต้องใช้เรียนวิชาพื้นฐานทางจิตวิทยา.

찬빠이티헛쌔물ตู้เออ냥쓰ตี멍차리안위차푼탄탕짚위타야

แล้วก็ได้พบกับคนหนึ่งที่กำลังยืมหนังสือเล่มนั้นอยู่.

래우꺼다이좁깝콘คนนึ่งติกำลังยืมหนังสือเล่มนั้นอยู่

“คือว่า... คุณอ่านหนังสือเล่มนั้นจบแล้วหรือยังคะ?”

“크와... คุณอ่านหนังสือเล่มนั้นจบแล้วหรือยังคะ?”

“อ้อ! คุณที่เรียนวิชาเดียวกับฉันใช่หรือคะ?”

“เอ! คุณที่เรียนวิชาเดียวกับฉันใช่หรือคะ?”

เขาถือคู่มือคนนั้น.

คาอูคูเออคนนั้น

“อ้อ... ใช่แล้วค่ะ... แต่ตอนนี้เหลือหนังสือเล่มเดียวของฉัน...”

“เอ... ใช่แล้วค่ะ... แต่ตอนนี้เหลือหนังสือเล่มเดียวของฉัน...”

“แต่ว่าผมเป็นคนที่ยืมหนังสือเล่มนี้ก่อน... เอาอย่างนี้ดีไหมครับ.”


“แต่ว่าผมเป็นคนที่ยืมหนังสือเล่มนี้ก่อน... เอาอย่างนี้ดีไหมครับ.”

ถ้าคุณไปดื่มกาแฟกับผมสักแก้ว.

타꾼빠이เติ่มกาแฟกับผมสักแก้ว

ผมจะให้หนังสือเล่มนี้กับคุ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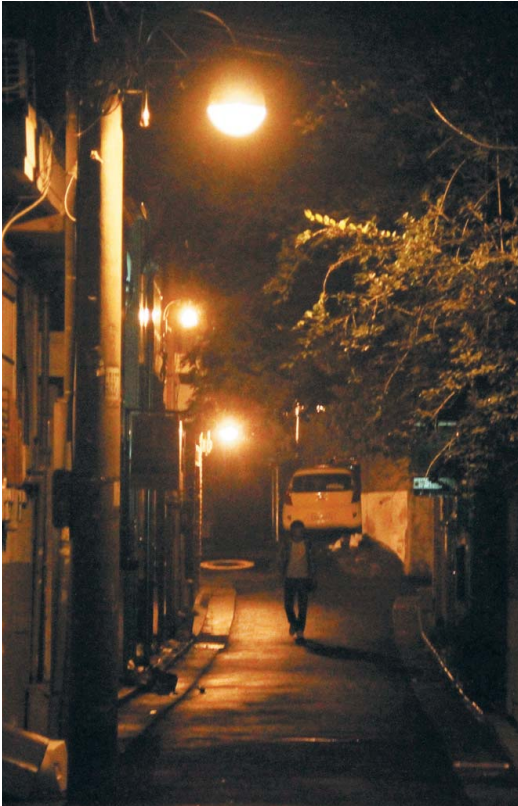
ผมจะให้หนังสือเล่มนี้กับคุณ.



# '무섭지' 만 '안전' 하다는 우리의 자취촌

최근 뉴스에는 흉악한 성범죄를 비롯해 많은 강력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지난 달에 발생한 이문동 성폭행 미수사건이 인터넷 상에서 화두거리가 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배움터와 글로벌캠퍼스 주변 자취촌에서 일어난 흉흉한 소문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평소 학교 주변 자취하는 학생들의 치안이 위험하다는 문제는 자주 제기돼 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점검할 기회가 없었다. 때문에 이번 기획에서는 본지의 주도로 학교 앞 자취촌의 안전을 점검한다. 편집자주

## <서울배움터>



▲ 서울배움터 후문 주변 자취촌의 어두운 골목길을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다.

### ◆ 자취생 80%이상 위험, 불안 느껴

자취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안전도를 알기 위해서 서울배움터 주변 자취생을 대상으로 지난 달 10일(월)부터 13일(목)까지 총 4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자취생들이 거주하는 곳으로는 후문 주변 자취촌이 52.33%로 가장 많았고 △정문 주변 자취촌에 사는 학생들이 32.56% △기타(신이문역 주변, 회기

역 주변에 사는 학생들이 8.53% △외대앞역 뒤편(2.34번 출구)에 사는 학생들이 6.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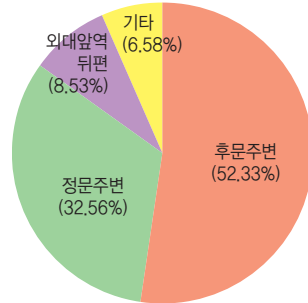
설문조사 결과 자취를 하면서 위험, 불안을 느낀 학생은 설문에 응한 학생 중 81.14%로 나타났다. 위험, 불안을 느끼는 요인으로 자취촌 바깥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부족(가로등, CCTV)이 50.55%으로 가장 컸고 △만취자나 동네불량배의 위협(16.97%) △경찰의 치안확보 부족(15.5%) △거주지의 방법시설 부족(현관 CCTV, 방범창 등) (12.92%)이 그 뒤를 이었다. 정문 근처에 거주중인 김혜은(서양어·프랑스어 12)은 "자취촌 주변에 CCTV는 많이 있으나 정문 주변에는 술집이 많고 가로등이 어두워 귀가 시 무섭다"고 말했다. 후문 근처에 거주중인 양혜경(서양어·이탈리아어 12)은 또한 "골목의 가로등들이 밝지 않고 인적이 드물어 으스스하다"며 "자취하는 곳에 치안 확보를 위한 시설은 충분히 구비돼 있으나 골목길로 가면 누가 쫓아오는 경험도 더러 있어 두렵다"고 전했다.

### ◆ 자취촌의 안전 실태 기자의 눈으로 확인하다

본 기자는 이문동 자취촌의 안전 점검을 위해서 지난 달 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총 3일간 오후 10시~12시경에 후문 주변과 정문 주변의 자취촌을 취재했다. CCTV는 다세대 건물의 경우 대부분 설치돼 있어 문제가 없었다. 방범창 또한 한 건물도 빠짐없이 반지하층과 1층에 모두 설치돼 있어 외관상으로는 안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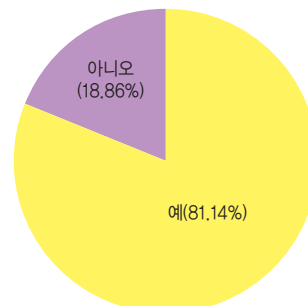
문제는 가로등의 개수와 술에 취한 사람들이었다. 대표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좁은 골목 사이는 가로등이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나마 있는 가로등들마저도 어두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술에 취한 사람들 또한 길거리에 앉아 있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아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 1. 어느 곳에서 자취를 하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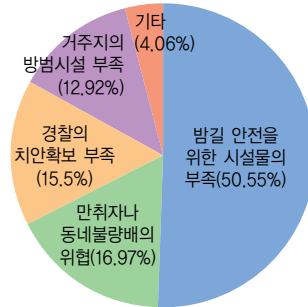
응답자수 258명

### 2. 자취를 하면서 위험, 불안을 느끼는가?



응답자수 334명

### 2-1. (2번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위험·불안을 느낀다면 그 요인은 무엇인가?



설문대상 : 서울배움터 전체 학생  
설문기간 : 지난 달 10일(월) ~ 13일(목)

### ◆ 경찰 측 "하루에 순찰 48번, 자취촌 안전해"

이를 바탕으로 경찰 측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이문동 파출소를 방문했다.

우리학교 주변 치안 현황에 대해 이문동 파출소 사병일 경위 팀장은 "이문동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대부분 자취촌 주변이 아닌 아직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발생한다"며 "대부분의 자취촌 건물마다 개인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인 CCTV와 합쳐본다면 사각지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문동 파출소 이상은 경장 또한 "현재 한국의대 주변 자취촌에 설치돼 있는 공식적인 CCTV는 24대이다"며 "순찰은 2시간에 4번꼴로 하루에 총 48번을 돌고있다"고 전했다.

### ◆ 경찰 측 "자취촌 안전하다"

#### 자취생 측 "여전히 무섭고 불안해"

학생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자취생들이 체감하는 자취촌 주변 치안 확보 정도는 낮았다. 그러나 경찰 측의 입장은 자취생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경찰 측은 △CCTV개수 △범죄발생정도 △경찰순찰 횟수로 미루어 볼 때 자취촌 주변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자취생들이 위험, 불안을 여전히 느끼는 것이 사실인만큼, 불만의 이유를 찾아대비책을 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정성혁(서양어·프랑스어 09) 서울배움터 총학생회장은 "저도 자취를 하는 입장에서 경찰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자취생 분들이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을 심본 이해할 수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취촌 안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면 총학생회 차원에서 운영하는 순찰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겠다"고 전했다.

유상민 기자 86chickenchicken@hufs.ac.kr

## <글로벌 캠퍼스>

### ◆ 도대체 모현에서는 무슨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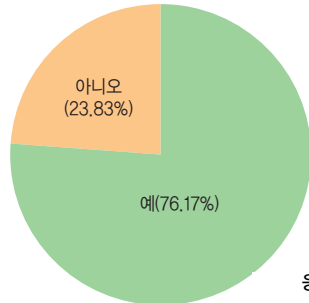
지난 4월 18일(수) 오전 2시 55분쯤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의 한 원룸 1층 방에 A모씨가 창문을 열고 침입했다. A씨는 방에서 잠자던 B모씨·C모씨에게 다가간 뒤 인기척에 놀라 잠이 깬 C씨를 성폭행하려고 했고, 지난해 4월 원터치SOS 서비스에 가입했던 B씨가 휴대전화의 1번을 길게 누르는 순간 경기경찰청 112신고센터로 연결됐다. 신고를 받은 지 1분 만인 오전 2시 56분 검색된 지역 근처를 순찰하던 모현파출소 소속 경찰들이 출동했다. 신고 내용을 들은 경찰은 10분 뒤인 오전 3시 5분쯤 원룸에서 도망쳐 나온 A씨를 검거했다.

- 출처 4월 20일자 인터넷 신문 아시아 경제

### ◆ 우리학교 학생들의 체감 안전도 '빨간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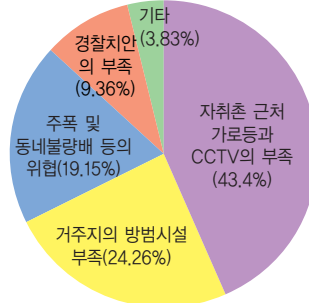
본지에서는 학교 앞 자취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달 10일(월)부터 13일(수)까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교 앞 치안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76%의 학생들이 위험하게 느낀다고 답했다. 원인으로서는 자취촌 근처 가로등과 CCTV의 부족이 43.3%로 가장 높았고, 거주지의 방법시설 부

### 1. 학교 앞 치안에 대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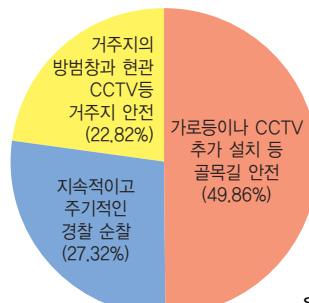


응답자수 298명

### 1-1. (1번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면) 학교 앞 치안에 대해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점은 무엇입니까?



### 2. 현재 자취촌의 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보완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수 355명

설문대상 : 글로벌캠퍼스 전체 학생  
설문기간 : 지난 달 10일(월) ~ 13일(목)

족이 24.3%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설문에 응답한 49.9%의 학생들이 현재 자취촌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점으로 순찰 가로등이나 CCTV 추가 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뒤를 이어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경찰 순찰이 27.3%를 차지했다. 현재 학교 앞 빌라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복금희(동유럽·루마니아 10) 글로벌캠퍼스 동유럽대학생회장은 "아직까지 학교 앞 치안의 상태는 부족한 상태라고 느낀다"며 "모현에도 성능이 좋은 CCTV들이 추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혀 경각심을 일깨웠다.

### ◆ 우리학교 앞, 내가 살기에 안전한 걸까?

학생들은 글로벌캠퍼스 정문을 등지고 섰을 때, 개울 오른쪽의 원룸촌을 일명 강남이하 강남, 왼쪽을 강북이하 강북이라고 부르고 있다. 강남지역의 CCTV는 대부분 설치돼 있지만, 가로등은 왕산오피스텔 앞에 단 한대만 설치돼 있다. 반면 강북지역은 지난 해와 다르게 가로등이 추가 설치돼 밝아졌지만, CCTV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즉, 강남지역은 가로등이 현저히 적고, 강북지역은 CCTV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현재 학교 앞 거리에는 파출소에서 관리하는 방범용 CCTV 2개뿐이었다. 지난 학기 왕산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했던 권효은(통번역·태국어 11)은 "왕산초 근처는 특히 다른 곳보다 어두운 편"이라며 "파출소가 근처에 있지만 골목이 많고 인적이 드물어 혼자 걸어가면 무섭다"고 전했다.

### ◆ 학교 안팎으로 실시하는 순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더 자세한 치안 상황을 알기 위해 모현 파출소를 찾았다. 그곳에서 만난 모현 파출소 팀장은 "외대 앞 치안은 위험상태는 아니다"라며 "모현 자체가 사건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모현 파출소의 경찰 순찰은 24시간내내 수시로, 특히 취약시간(새벽 1~3시 정도)을 집중적으로 순



▲ 파출소에서는 학교 일대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지만, 파출소에 전화를 해서야 겨우 순찰차를 만날 수 있었다.

찰하고 있다. 더불어 경찰 뿐 아니라 모현 주민들도 이뤄진 민간 자율방범대가 순찰을 하기도 한다. 또한 모현 파출소 팀장은 "근처에 싸움이 일어나거나, 먼 밤길을 여학생이 혼자 걸어갈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또한 지난 선거에서 공약으로 '모현 폴리스'를 내세우며 학교 앞 치안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현성(통번역·아랍어 0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이번 총학생회에서는 학생 자율 방범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실행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학교와도 아직 협의중"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실행기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렇듯 파출소와 총학생회에서는 더 나은 학교 앞 치안을 위해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보여지듯이 학생들이 느끼는 위험도는 높기만 하다. 최근 뉴스에서는 갈수록 험악한 범죄 소식들만 전해온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이럴 때일수록 파출소와 총학생회는 학생의 밤길 안전을 위해 한줄기 빛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 "낮에도 이렇게 어두운데 밤에는 앞뒤분간도 안가" 사진 속 삼일 빌라에 사는 주민이 말했다.

<서울배움터>

# 학생은 다음 네 가지 수업의

# 내용을 스스로 채우시오

교수는 강단 위에 서서 설명하고,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바쁘게 펜을 움직인다. 교수가 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때를 빼면, 학생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겪는 수업 풍경이다. 하지만 서울배움터에는 이와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수업이 있다. 교실 안에서 로맨스 드라마를 찍는가 하면, 누구의 손에도 펜이 쥐어져 있지 않다. 학생이 강단에서 교수대신 수업을 이끌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짝공과 끊임없이 수다를 떨기도 한다. 각자 다른 풍경을 지녔지만 네 가지 수업에는 공통점이 있다. 틀은 교수가 던져주지만 그 내용은 학생이 스스로 채운다는 것이다. 과연 학생이 채우는 “다음 수업은 학생이 □□하는 수업이다”의 □□는 무엇일까.

## 1. <드라마 일본어>는 학생이 연기 하는 수업이다.

배경음악이 경쾌하게 깔린다. 짐짓방 풍경을 담은 스크린이 칠판 앞쪽에 내려와 있다. 수건으로 양머리를 만들어 쓴 학생이 맥반석 계란을 까먹기 시작한다.

<드라마 일본어> 수업의 한 풍경이다. 이곳에서는 수업 이름 그대로 드라마를 통해 일본어를 배운다. 대부분을 교재로 삼을뿐더러 드라마의 한 장면을 다른 수강생 앞에서 연기하기도 한다. 이들이 연기하는 모습은 연극 동아리 못지않게 실제적 풍경을 연출한다. 배경음악과 소품은 기본이며 스크린을 내려 그럴듯한 배경도 만든다. 스스로 변역한 대본으로 연기에 열중한 학생을 지켜보며 교수는 잠시 물러나 있다.



“헐라가나보다 소통이 더 중요합니다”

<드라마 일본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이 수업의 목적, ‘교과서 속이나 상상 속의 일본인이 아닌 현실의 일본인과 소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현실의 일본인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교과서보다도 생생한 대화가 나오는 드라마를 이용해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기는 왜 하는 것일까. 장성숙 교수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선생이 억지로 암기를 시키는 것보다 대사를 통해 익히는 게 더 즐겁다는 것이다. 그녀의 말처럼 이 수업에서는 공부라 아니라 연기를 하는 기본으로 일본어를 익힐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한국드라마의 대사를 일본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에는 직설적이고 거친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거친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거친 말을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ばか’(바보)라는 말로 순화한다. 한국 문화와 일본 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고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성숙 교수는 말한다. “저는 이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단어를 하나하나 암기하고 문법을 완벽하게 구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시제나 조사보

다 중요한 건 뜻이 통했나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헐라가나(일본 문자)를 하나도 모르는 학생에게는 과제를 한국어 발음으로 써오라고 주문한다. ‘아리가또’ 이렇게 말이다. “학생들의 번역에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녀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다.

## 교수에게 직접 들은 A+팀

- 리액션 잘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라. 중요한 건 유창한 일본어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스스로 노력했느냐.

## 2. <재즈의 역사>는 학생이 선택 하는 수업이다.

불 꺼진 교실 안, 자리에 앉은 학생들의 손에는 펜이 없다. 발표자가 냄비를 들고 나와 드럼 연주를 선보인다. 어떤 학생은 랩으로 각색한 발표문을 낭송한다. 이런 독특함은 없지만 학술적으로 재즈를 파고들어 발표하는 학생도 있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헤비메탈 영상은 학생들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한다.

<재즈의 역사>의 속사정이다. 학생들의 발표로 진행되는 이 수업에는 교재가 없다. 발표에 정해진 틀도 없다. 재즈가 주가 되기는 하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가져오는 학생도 있다. 발표도중 무엇이 등장하던 교수는 학생에게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본다. 시험 범위는 학생들의 발표내용이다.



“헤비메탈도, 그 무엇도 O.K”

<재즈의 역사>가 이토록 자유로운 이유는 이 수업의 근본적인 의도가 ‘학생들이 잘하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이기 때문이다. 발표형식이 자유롭게 되면 학생은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학생은 직접 악기를 연주하고, 진지하게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잘하는 학생은 재즈에 대한 지식을 정직하게 발표한다. 자유로운 형식 속 개성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학생은 본인이 무엇을 잘하는지 더 명확히 깨달을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은 재즈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재즈를 실제로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즈용어 ‘스윙’은 정상적인 박자 앞 혹은 뒤에 놓는, 강박 사이의 긴장을 뜻한다. “이 정의를 보고는 스윙이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박승오(상경·경제 12군)은 말했다. “오히려 가수 시크릿의 노래인 ‘사이보이’를 들으면서 스윙이 뭔지 알 수 있었죠.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노래 안에 스윙이 있어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두뇌보다는 감성으로 재즈를 익히고 있었던 것이다.

김은신 교수는 말한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이라 하면 초·중·고등학교 때 이미 질릴 만큼 받았어요. 대학에 와서라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 실마리나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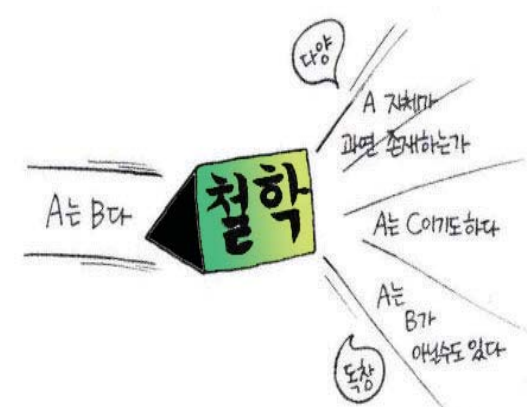
## 교수에게 직접 들은 A+팀

- 수업을 멋대로 즐겨라

## 3. <현대사회와 철학>은 학생이 생각 하는 수업이다.

“자, 지금부터 제 말을 반박해 보세요” 이준 교수가 말한다. “시간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돼 있습니다. 0.01초 전은 과거죠? 그리고 0.01초 후는 미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현재는 0에 수렴합니다. 우리는 0에 수렴하는 것은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럼 현재는 없는 것이 되네요. 그럼 과거는 있나요? 있었던 것이지 있는 건 아니죠. 미래는요? 미래라는 말 자체가 ‘아직 오지 않았다’이므로 미래도 없습니다. 시간은 과거 아니면 현재 아니면 미래인데 이 세 개가 다 없으니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내 말에 반박해 보세요”

<현대사회와 철학> 수업 중 교수가 실제로 한 말이다. 이 질문의 의도는 학생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답을 내느냐를 중요히 여기지는 않는다. 교수가 현대철학의 사상을 배분해주면 학생은 이것을 공부해온 후 강단 위에 올라 다른 이들에게 자신이 이해한 바를 설명해야 한다. 교수는 발표 전에는 내용에 대해 아무런 귀뜸도 해주지 않는다. 발표가 끝난 뒤 보충설명을 해주는 정도이다. 교수는 내려가 있고 학생이 강단 위에 올라온 이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 정적인 풍경으로 보이지만 사실 학생들의 머릿속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소크라테스와의 ‘식사’ 전 제안을 다 걸겠소”

<현대사회와 철학> 수업방식은 대학원 세미나 방식과 같다. 또한 책 ‘정오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수업방식과도 비슷하다. 이런 방식은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준 교수의 생각에서 나왔다. 그가 생각하기에 철학은 ‘정답이 없는 학문’이다. 따라서 철학 수업은 ‘@는 무엇이다’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를 보는 다양한 관점’을 생각해 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관점에 대해 사유하는 과정은 자신의 관점을 성립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도 좋습니다” 권효중(사회·정의 12양)은 말했다. 이준 교수는 철학은 전공자만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이라 생각하기에 <현대사회와 철학>에서 학생에게 생각의 주도권을 맡겼다. 물론 생각의 대상이 되는 사상들이 비전공자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타인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라고 말하는 김정원(국제·국제 12군)을 포함해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어렵지만 좋다’고 외친다.

“현대 사상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실이 왜 이런 사회구조가 됐는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준 교수는 말한다. “철학은 관

점입니다.” 독창적인 관점을 기계에 담아 성공한 스티븐 잡스는 이런 말을 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회사의 모든 기술을 내줄 수 있다.”

## 교수에게 직접 들은 A+팀

- 자신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라.

## 4. <수화 교육>은 학생이 소통 하는 수업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이 시작된 19일 오후 3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준비된 기자회견 무대에는 단 두 사람만 올라왔다. 주인공인 안 원장과 함께 무대에 오른 이는 수화 통역사 이민연씨였다.

이번 달 19일(수)에 나온 한겨레 신문의 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대한민국의 언어에는 청인(聽印)이 쓰는 ‘한국어’와 농인(聾人)이 쓰는 ‘한국수화’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는 두 명이 올라온 것이다. 이 한국수화를 가르치는 수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대학, 바로 우리학교에 있다.



“말할 필요도 없는 즐거움”

<수화 교육> 수업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 교수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면 짝공과 함께 직접 해본다. 수화 역시 언어이기 때문에 단어와 표현을 외워야 하는데, 동작들의 기원이 명확하다는 사실은 암기에 도움을 준다. 많이 알려진 ‘사랑합니다’ 표현은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를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배고프다’를 나타내는 동작에는 뱃가죽과 등가죽이 달라붙는다는 뜻이 담겨 있다. 이 수업은 동작이 만들어진 정확한 이유를 배우는 것과 함께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수업이다.

<수화 교육>에서는 수업 들는 학기 중 한 번은 농인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진다. 1학기 때는 ‘아시아태평양농아인체육대회’, 2학기 때는 ‘수화문화제’에서이다. “모두가 활발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정적이 흘렀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소리 내어 말하는 우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죠” 제 7회 아시아태평양농아인체육대회에 다녀온 고성애(동양어·몽골어 11)양의 말이다.

한기열 교수는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소통을 가르치고 싶다”고 말한다. 한국수화를 사용하는 농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소통이 활발했으면 하는 것이다. “이 수업을 듣는다고 농인들과 자유자재로 대화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입장에 대해 한번은 생각해보고, 그들과의 소통이 당연하다는 걸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전했다.

## 교수에게 직접 들은 A+팀

- 이 수업을 위해서 선택해라. 연습해도 안 되는 부분은 도와달라고 말하는 패기를 가져라.

극과극 기자 고정칼럼 문나윤 기자

## 인도여행으로의 초대



▲ 연극 <인디아블로그 시즌2>

떠나요, 돌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는 '제주도 푸른밤'의 노래 한 자락이다. 종종 여행이 떠나고 싶을 땐 이 노래가 생각난다. 일상적인 나날을 보내다 문득 여행이 가고 싶어질 때, 일을 잠시 중단한 뒤 재충전의 기회를 갖으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타지에서 내 주위와 나를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말이다. 개강 후 학교, 집, 도서관 등 한정된 곳에서 정신없이 바쁘다면 잠시만, 타지로의 출몰을 떠나보면 어떨까. 대학생이 가장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인도를 가까운 대학로 공연장을 통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권하고 싶다.

연극 <인디아 블로그 시즌2>는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남다르다. 인도 느낌이 들것 풍기는 의상과 전통공예, 전통 차까지. 당신의 인도여행은 공연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 연극장에 들어선 순간 '인도'라는 설정으로 배우와 스텝이 32일간 인도에서 겪은 기차여행의 풍경부터 특별히 종종 떠있는 사막의 밤 △우다이푸르(Udaipur)의 호수 △디우(Diu)에서의 인도 전통 춤과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까지의 영상과 함께 100분간의 알찬 인도여행으로 이끈다.

이때 관객과 함께하는 주인공 두 배우 즉, 인도 여행의 친구를 소개한다. 여자친구와 이별 한 뒤 홀로 이별여행을 떠난 백수 청년과 인도여행을 하면 유럽여행에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온 한 대학생이 당신의 여행길을 인도한다. 이들도 우리처럼 일상의 고민이 새로운 곳에서 풀리기를 바라며 여행을 떠났다. 때문에 관객과 배우들은 그 고민을 디아(Dia) 꽃으로 장식된 작은 초에 빌어댄 지스 강에 함께 띄운다.

극의 막이 내리고 인도를 떠나 현실로 돌아온 배우들의 세상은 그대로다. 하지만 인도여행의 기억은 분명 힘이 된다.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고민하던 백수청년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으로 거듭나고 그간 가족의 사랑을 몰랐던 대학생은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극이 막을 내린 뒤 귀국한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지만 인도여행을 통한 휴식이 현실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길 바라본다.

떠나요, 돌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는 '제주도 푸른밤'의 노래 한 자락이다. 종종 여행이 떠나고 싶을 땐 이 노래가 생각난다. 일상적인 나날을 보내다 문득 여행이 가고 싶어질 때, 일을 잠시 중단한 뒤 재충전의 기회를 갖으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닐까. 일상이라는 공간에서 벗어나 예측할 수 없는 타지에서 내 주위와 나를 생각해볼 기회를 갖기 위해서 말이다. 개강 후 학교, 집, 도서관 등 한정된 곳에서 정신없이 바쁘다면 잠시만, 타지로의 출몰을 떠나보면 어떨까. 대학생이 가장 여행해보고 싶은 나라 1위, 인도를 가까운 대학로 공연장을 통해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권하고 싶다.

연극 <인디아 블로그 시즌2>는 공연장 입구에서부터 남다르다. 인도 느낌이 들것 풍기는 의상과 전통공예, 전통 차까지. 당신의 인도여행은 공연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시작됐다. 연극장에 들어선 순간 '인도'라는 설정으로 배우와 스텝이 32일간 인도에서 겪은 기차여행의 풍경부터 특별히 종종 떠있는 사막의 밤 △우다이푸르(Udaipur)의 호수 △디우(Diu)에서의 인도 전통 춤과 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덤 타지마할까지의 영상과 함께 100분간의 알찬 인도여행으로 이끈다.

이때 관객과 함께하는 주인공 두 배우 즉, 인도 여행의 친구를 소개한다. 여자친구와 이별 한 뒤 홀로 이별여행을 떠난 백수 청년과 인도여행을 하면 유럽여행에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온 한 대학생이 당신의 여행길을 인도한다. 이들도 우리처럼 일상의 고민이 새로운 곳에서 풀리기를 바라며 여행을 떠났다. 때문에 관객과 배우들은 그 고민을 디아(Dia) 꽃으로 장식된 작은 초에 빌어댄 지스 강에 함께 띄운다.

극의 막이 내리고 인도를 떠나 현실로 돌아온 배우들의 세상은 그대로다. 하지만 인도여행의 기억은 분명 힘이 된다. 현실과 이상사이에서 고민하던 백수청년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청년으로 거듭나고 그간 가족의 사랑을 몰랐던 대학생은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는다. 마찬가지로 극이 막을 내린 뒤 귀국한 우리의 현실도 여전히지만 인도여행을 통한 휴식이 현실을 다시 살아갈 힘이 되길 바라본다.

# 대학생에서 사회인으로!

## 우리학교 졸업한 2인의 취업 뒷이야기

얼마 전 우리학교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방문자 수가 지난 해에 비해 30%가 증가했을 만큼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참여 열기가 대단했다. 적극적으로 취업 정보를 찾는 모습과 진지하게 입사상담을 받는 학생들의 모습이 박람회장을 가득 채웠다. 소위 바늘구멍같은 취업의 문을 바로 올해 먼저 통과한 우리학교 2인의 취업이야기를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파헤쳐보자. **편집자 주**

### Q1. 지금 다니는 회사로 입사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심현준(인문·언어인지 05) 우리은행 입사** 어떤 직종을 선택하든 가장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취업준비를 하다보니 금융권의 인재상이 진취적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일에 임할 준비가 된 성실한 사람임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저 자신이 은행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생겨 입사했습니다.

**이우열(상경·경제 06) CJ제일제당 입사** 대학생 시절 지금 입사한 곳에서 인턴을 해보니 회사 분위기와 업무가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또 업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보여서 망설임없이 입사하게 됐습니다.

### Q2. 동아리 활동이나 대내외 활동을 많이 하셨나요?

**심현준** 군대를 가기 전에는 대외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소극적인 학생이었어요. 제대 후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무작정 미국으로 떠나야 할 소주립대학에서 '국제문화 팀'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그 동아리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각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활동을 하며 성격도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한국 역사관에서 짧지만 인턴경험을 한 것도 사회생활을 배우는 기회가 됐죠.

**이우열** 동아리활동은 경제학과의 축구부가 전부였어요. 대외활동이라면 우리학교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퇴계5가에 있는 제일제당센터 사업전략팀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을 꼽을 수 있겠네요. 활동 중 부여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인턴과정 마지막에 연구 발표가 잘 돼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센터를 통한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 이번 해 우리은행에 입사한 심현준(인문·언어인지 05) (오른쪽에서 두번째)



▲ 이번 해 CJ제일제당에 입사한 이우열(상경·경제 06)군 (가운데)

### Q3. 후배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 실질적인 스펙이 궁금합니다.

**심현준** 졸업학점은 4.04였고 △토의 Reading 970점 △토의 Speaking 7점 △토의 Writing 8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준비를 하다 보니 될 수 있으면 자격증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우열** 사실 저는 졸업학점도 겨우 3.5를 넘었고 토익시험점수와 스피킹 점수도 평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몇 번의 입사지원 시도에서 실패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저만의 매력을 찾는 것이 가장 큰 스펙이었던 것 같아요.

### Q4. 인사 담당자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심현준** 남들처럼 기본적인 스펙을 쌓으며 학교생활을 성실히 한 것이 취업의 기반이 됐습니다. 또 잠시나마 외국생활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성격적, 적극적으로 변하게 한 것을 저만의 색깔로 만들어 강조했어요.

**이우열** 인사담당자를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면접 단계인데 이미 면접단계까지 갔다면 스펙의 차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준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열정을 최대한 보여주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제가 대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최대한 예의있는 모습과 함께 적극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제가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매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Q5. 마지막으로, 취업을 위한 나만의 노하우나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심현준** 어느 길로 갈지 확실히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다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더 좋은 직장일수록 소위 '초고스펙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럴수록 남들이 갖지 않은 다른방면의 스펙을 보유한 사람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학교 후배들도 꼭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큰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우열** 서류에서부터 혹은 면접에서 수없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특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토익시험이나 제2외국어를 다시 공부하시는 후배분들도 있던데 그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권수정 기자 86sj@hufs.ac.kr

운동장 기자 고정 칼럼 (길로)

김정원 기자

## 화려한 성공 뒤 숨은 주역들

무술같은 화려한 기술로 공을 다루며 상대와 겨루는 경기. 바로 세팍타크로(sepaktakraw)라는 경기다. 기본적인 규칙은 족구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종목만의 긴장감과 속도감을 비교할 바가 못 된다.



▲ 세팍타크로 경기모습. △피터 △킬러 △테콩, 모든 구성원이 역할을 다하는 팀이 승리할 수 있다.

아시아 게임에서 채택한 보편적인 방식은 세 명이 한 팀을 구성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진영으로 공을 차는 레구 이벤트(regu event)이다.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공격을 통해 점수를 취하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가장 화려한 공격이 '롤링 스파이크(rolling spike)'라는 기술이다. 족구의 오버헤드 킥과 비슷한 자세로 공을 상대편 진영으로 강하게 쏘아 넣어 상대를 긴장시킨다. 이 기술을 쓰는 선수는 공격을 담당하며 '킬러'라는 포지션을 맡는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에 관중들이 열광하는 것은 물론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세팍타크로 경기에는 '킬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수비 담당인 '테콩'과 '피터'도 존재한다. 킬러가 득점을 올리는 동안 테콩은 코트 위의 원에서 서브를 놓으며 수비를 책임진다. 동시에 피터는 확보한 공을 킬러가 공격

하기 편한 지점으로 보낸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킬러 곁에는 그를 돕는 두 명의 팀원들이 있다.

집중조명을 받는 사람만 보다 보면 그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잊기 쉽다. 그러나 킬러가 화려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테콩의 서브와 수비도, 피터가 적절한 위치로 공을 전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킬러의 화려한 공격 기술에 눈길을 빼앗겨 테콩과 피터의 모습을 놓쳤다면 이번엔 그들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며 팀의 승리와 동료의 롤링 스파이크를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그들의 움직임에 집중해 보자. 화려한 동작 뒤에 숨겨져 있던 다른 매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맨눈으로 보는 그림 기자 고정 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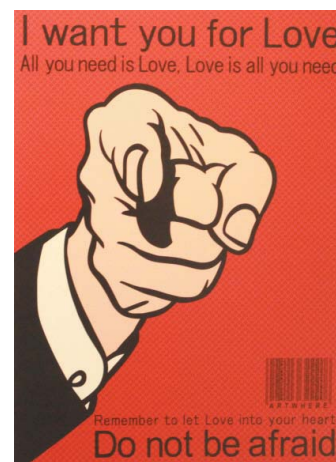
임채운 기자

'맨눈으로 보는 그림'은 그림과 화가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작품 그 자체만을 감상하는 코너입니다.

## 당신, 두려워 마시오

홍대 거리의 한 지하 미술관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다. 그림은 커다란 손으로 샷대질을 하고 있다. 제목도 "Hey You"다. 행인에게 다짜고짜 샷대질을 하는, 어찌 보면 무례한 그림이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러나?' 하며 그림 속 글귀를 읽는다. "I want you for love. All you need is Love. Love is all you need. Remember to let love into your heart. Do not be afraid" 사랑만 있으면 삶이 끔찍했다고 이야기한다.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 이란다. 아름다운 이야기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인상 깊게 전달하고 싶어 샷대질을 이용한 건가.

그러나 그림을 자세히 보니 배경의 짙은 빨간색을 촘촘히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 그건 바로 \$라는 글씨이다. \$는 달러를 나타내는 통화기호다. 사랑을 채우는 것은 돈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그림, 멀리서 보면 정열적이었으나 가까이서 보니 슬퍼진다. 사실 이 그림을 멀리서 볼 수도 있고 가까이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이서 시선이 나타내는 게 현실일지도 모른다.



▲ 김종준, Hey You



▲ 그림을 가까이서 본 모습. \$자가 보인다.

썩썩한 마음으로 지하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밤늦은 시간이라 주위는 어두웠다.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정류소로 향했다. 버스정류소에는 서로 손을 꼭 붙잡은 대학생 커플이 있었다. 버스가 왔는지 여자가 종종걸음으로 버스를 향해 갔다. 여자가 탄 버스가 출발하고 버스가 사라져갈 때까지 남자는 버스의 뒷모습을 길게 지켜보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이 탄 버스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발걸음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서 \$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그림을 펼친다. 누구나 입장 가능한 무료 갤러리 한구석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풍기던 이 그림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의 이면에 돈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림 'Hey you'는 사랑보다 돈을 우위에 두는 you에게 샷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사랑은 돈과 관계없이 아름다운 것이라 믿는 당신의 순수한 마음에 겁먹지 말라 다독이는 것이다. Do not be afraid라 힘주어 말하면서.



<학술 인터뷰>

# 사랑에 빠진 '번역'과 '철학'

## 윤성우 교수의 번역철학 세계



네덜란드 시인 후프트(Hoof)는 사랑했던 여인의 묘비에 비문을 적었다. 그는 이를 더욱 애절하게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다. 첫 줄에는 네덜란드어로, 다음은 라틴어로, 그 다음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다시 라틴어, 이탈리아어, 마지막으로 다시금 네덜란드어로 비문이 적혔다. 이에 대해 우리학교 윤성우 철학과 교수이하 윤 교수는 "사실을 서로 다른 언어로 읽어보는 것. 그 자체가 저자가 얘기하려 했던 실체에 좀 더 가까워지는 과정이며 이는 번역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번역은 무엇이며, 번역에는 어떠한 철학이 담겨있을까?

지난달 4월(토) <경향신문>은 '인문학이 던지는 12가지 질문' 중 10번째 연재 기사에 우리학교 윤 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주제는 '번역은 우리에게 무엇이어서 하는가'였다. 이와 관련된 주제로 윤 교수는 2010년, <번역(translation/ traduction)에서의 trans- /tra- 개념-벤아민에서 베르만으로->라는 논문을 <기호학 연구>라는 전문학술지(KCI등재)에 발표했다. 윤 교수의 설명을 통해 위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자.

번역자들은 우리주변에 매우 많지만 우리는 그 책이 '번역'됐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학 작품이 노벨문학상에서 여러 차례 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누가 어떻게 번역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심지어 국가경쟁의 중대 사안인 한·미 FTA 조약의 진행 과정에서도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조항을 번역했는가'에 대해 묻는 이는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번역본이 원본보다 못하다는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윤 교수는 설명한다. 번역은 '태생적 이원성'이라는 문제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태생적 이원이란 △저자 중심으로 번역할 것인가, 독자 중심으로 번역할 것인가 △내용에 따라 번역할 것인가, 형식에 따라 번역할 것인가 △의미대로 번역할 것인가, 문자대로 번역할 것인가 등의 충돌이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번역이라 하더라도 원서의 모방에 불과하다는 인상과 평가가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서를 뛰어넘을 새로운 번역 철학이 요구된다.

먼저 '번역'의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보자. 외국어를 잘하면 번역도 잘할 수 있는가? 외국어 능력

과 번역 능력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지만 이 둘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번역은 하나의 원문을 놓고서, 어휘나 문장의 잠재적인 복수 대안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 더 나아가 잠재적인 대안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를 선택·결정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윤 교수는 "시대 및 문화전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번역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새로운 사람과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의 본질은 '나 자신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애인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애인을 만나고 난 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험을 생각해 보라. 책도 마찬가지다. 책은 '원래의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만들어 준다. 윤성우 교수는 "내가 믿어왔던 것을 뒤집어 주는 것이 진정한 체험이자 경험의 본질"이라고 설명하며 "번역도 이러한 진정한 경험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는 다문화 사회다. 다른 사람, 다른 문화와의 만남은 글로벌 시대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교수는 "번역자들과 번역본을 읽는 독자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낯선 문화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개방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870년대 이후 외부 문물과의 만남에서 '외부 언어와 그 언어의 번역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일본의 △유람단 △사찰단 △유학생들을 보냈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다른 언어와의 만남을 연결해 줄 결정적인 통로인 번역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다. 즉 잘 번역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윤성우 교수는 번역철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철학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서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번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을 넘어 번역에 대한 배움 자체에 물음을 갖는 것이죠. 우리가 배움 자체가 무엇인지 물어 배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면 그것의 의미는 매우 클 것입니다"

김계선 기자 86ksholic@hufs.ac.kr

# 박재우 교수, 태극의 중심에서 '루쉰'을 외치다



사진 홍규원 기자

"중국작가들은 겉모습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하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어 표현에 항상 검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중국 작가들은 지혜를 발휘해 자신의 사상을 우회적으로 잘 표현하죠" 지난 해 국제루쉰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한중루쉰교류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재우 교수의 말이다. 박재우 교수가 중국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루쉰(魯迅, 노신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중국에서 루쉰은 중국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우리나라의 △문학 △지식인의 자기반성 △사회적 실천 부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루쉰은 문학을 통해 반봉건 정신을 투철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는 반제국주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입니다. 두 정신이 이 루쉰 공원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목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박재우 교수의 아쉬움 섞인 말이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루쉰 공원(홍커우 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일제에 폭탄을 던졌던 곳이자 중국의 위대한 문호인 루쉰의 정신이 불허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박재우 교수가 말하고 싶은 루쉰은 무엇일까? 또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루쉰이 한국에 수용된 과정과 사상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해 8월 인천대학교에서 제 13회 한중문화포럼이 열렸다. 여기서 우리학교 중국어대 박재우 교수는 "문학수용과 사상실천: 한국에서의 루쉰" 홍콩문학평론, No.6, 2011. 12월 발표했다.

루쉰의 글과 정신이 한국에 수용된 것은 1920년대였다. 루쉰 사상을 수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일본과 거의 같다. 그러나 한국의 루쉰 연구는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제약을 받으며 크게 뒤떨어졌다. 1945년 광복 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는 루쉰 작품의 번역과 소개에 대한 글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루쉰의 작품을 번역했고 그를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대학에서는 루쉰의 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반공주의가 극심해져 루쉰 연구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됐다. 1980년대에 와서야 루쉰 연구는 급속한 성장기를 맞이했고 '한국 루쉰학'의 방향을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 후 한국의 민주화 추세 속에서 루쉰에 관한 논문과 서적 및 해외 학자들의 전문번역본이 빠른 속도로 출

판되는 성숙기를 거쳤다. 그 결과 현재 루쉰 연구는 안정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1920년대부터 루쉰의 수용은 잠적기와 성장기를 반복하며 현재까지의 입지를 굳혔다.

"한국의 투쟁 정신은 루쉰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유수인과 이육사의 항일 투쟁운동에 루쉰의 사상이 활용됐다. 또한 군부독재 시절의 리영희, 전우익 선생 등 일부 지식인들은 그의 정신을 수용해 민주변혁 운동에 활용하기도 했다. 루쉰의 문학은 강자의 횡포와 사회적 압력에 대한 고발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항상 그 이면에 있는 제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이를 방지하는 지식인 스스로의 참회와 반성적 사유를 촉구한다.

루쉰 정신은 한국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루쉰의 사상을 통해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면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패권주의의 비인간성 소외 △제도의 폭력성 등에 대한 비판정신을 기를 수 있다. 박재우 교수는 "이는 루쉰 문학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며 "특히 민족주의적인 선동에 의해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루쉰의 정신은 지혜의 교량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루쉰(1881~1936) : 중화민국시대의 문학자, 사상가. 국내에서는 '노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아Q정전>이 있다.

이민정 기자 86cosmos@hufs.ac.kr

<p><b>&lt;윤성우 교수의 주요 저서·논문&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toine Berman'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Language and Translation: the Possibility of Translating without Platonism, FILOZOFIA(A&amp;HCI등재), 2011.04, No.66/4, pp.336-346.</li> <li>• Ricoeur and Berman: An Encounter between Hermeneutics and Translation Studies, Philosophy Today(A&amp;HCI등재), 2012.02, No.56, pp.16-25.</li> <li>• 인간 조건으로서의 번역의 필연성과 번역윤리, 대동철학회지(KCI등재), 2012.03, No.58, pp.87-101.</li> </ul> <p>외 KCI급 저널에 논문 30여편 이상 발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lt;번역과 문자&gt; 철학과 현실사, 2011.</li> <li>2. &lt;낯선 것으로부터 오는 시련-독일낭만주의 문화와 번역&gt; 철학과 현실사, 2009.</li> <li>3. &lt;생각하고 토론하는 서양철학 이야기&gt; 책세상, 2006 외 다수 번역서</li> </ol>	<p><b>&lt;박재우 교수의 약력과 주요 저서·논문&gt;</b></p> <p>1990.6 국립타이완대학 중문연구소 문학박사 1983.9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1990.1~1993.12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회장 2010.1~2011.12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현재 국제루쉰연구회 회장, 한중문화포럼 조직위원장, 한국문학번역원 이사.</p> <p>저서 : &lt;사기,한서비교연구&gt;(중문), &lt;한국루쉰연구논문집&gt;(중문, 공저), &lt;중국 현대문학과의 만남&gt;(공저) 등 20여권 발표</p> <p>논문 : 중국현대작가의 한인 항일투쟁에 대한 반영과 묘사, 중국학연구(KCI등재), 제35집, 2006. 03, pp.49-67. 를 포함하여 국·내외 유명 학술지에 50여편 발표</p> <p>역서 : 마오둔의 &lt;안개계절이 비가(霧靄)&gt;, 티에닝 모옌의 &lt;만사형통&gt;(공역) 등 10여종</p>
--	---

로그아웃

김계선 기자

### 저 그런 사람 아닌데요?



지난 5월 11일(금) 서울 중구의 만리동 공원에서 김재철 MBC 사장이 자아를 스스로 부정했다. <시시IN>의 취재진이 공원에서 마주친 김 사장에게 “혹시 김재철 사장님 아니신가요?”라고 묻자 김 사장이 “김재철이 누구예요? 그런 사람 몰라요”라고 발언한 것이다. MBC노조가 파업을 시작하기 하루 전날인 1월 24일(화)에 “노조의 부당한 압력에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김 사장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 김재철과 같은 인물인지 의심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SNS를 통해 ‘내가 다 창피하다’, ‘시트콤 찍냐’는 등의 글을 올리며 김 사장을 비난했다.

권력이 언론을 장악해 문제가 됐던 다른 예로 ‘부산일보 사태’를 들 수 있다. 부산일보는 부산의 유력 일간지다. 그런데 지난 해 11월 30일(수), 갑자기 발행이 중단됐다. 발행 중단 이유의 간단했다. 부산일보의 사주인 정수장 학회가 편집국이사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1면과 2면에 실었다는 이유로 신문 발행을 막은 것이다.

신문은 △대한민국 정부가 없어진 시대 △천재지변 △전시 등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온다. 신문의 주기적인 발행은 독자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엄밀히 말해서 신문의 주인은 ‘발행인’ 이전에 최종적으로 ‘독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문 발행을 위해 기자들이 사명을 갖고 움직이는 이유도 ‘독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도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택한다면 나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사회 권력층이 깊이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두산백과에서는 학교신문을 ‘학교 내 뉴스를 게재함으로써 학생에게 △신문의 의의와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며 △진실을 바르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태도와 기능을 숙달시키고 △학교 및 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학생기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두산백과에서 말한 ‘올바른 언론관’을 꿈꾼다. 그리고 대학에서 올바른 언론관에 대해 가르쳐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외대학보가 신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학교 신문이라면 시시비비를 가려 학교를 칭찬하기도 하고 채찍질을 하기도 하며 학교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학보의 역할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로써 우리학교 학생들이 ‘세계적 무대에서 일할 외대인’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가볍게 여기고 넘어간다면 우리학교에서 제 2의 김재철이 나올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불안감이 엄습해온다.

## 이 집터에서 반년을 지내며 배우고 느낀 이집트

동문의 소리



주 이집트 대사 김영소(서양어·스페인어 74)

나는 지난 3월 5일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의 시내 걸 모습은 1970년대의 서울을 닮았지만 실내는 넓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 다소 적응하기 힘들었다.

이집트에서는 민주화가 진행 중이다. 올해 6월 실시된 선거 결과 무슬림 형제단(MB)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Egyptology라는 학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의 이름을 딴 것이며 학문이 국가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다. 정치, 경제가 크게 발전하여 대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요구를 하면서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려고 할 것이다. 다만, 이집트인들의 대국 근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현상도 있다. 하나는 다수의 국민이 다른 나라의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문맹률이 3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명실상부 이집트의 고고학적 가치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고학 유산은 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집트에는 △피라미드 △스핑크스 △진전 △파라오의 무덤을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와 머물거리가 산재해 있다. 이집트는 정부에서 국가 과제에 관광을 포함시킬 정도로 관광을 중시한다. 이집트 국민 중 약 500만 명이 관광업 종사자 및 그 가족이라 하니 관광이 그만큼 중요하다. 또한 “조상을 효자”로 활용하는 나라인 만큼 관광 국가로서의 환경을 유지시킬지에 관심이 크다.

이집트는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869년 수에즈 운하의 건설 후에는 아시아, 아메리카에게도 교통 요충지가 됐다. 이집트는 위치로 인하여 항상 주목의 대상 국가였으며, 이집트의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은 주변 지역의 중요성에 비례하여 증대한다. 이 지역의 중요성은 20세기를 기점으로 확연히 두드러져 나타난다. 석유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며 지역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가가 대폭 상승하여 세계경제 위기로 치달게 돼 지역 맹주를 자임하는 이집트의 중요성이 커졌다. 또한 이스라엘의 탄생과 더불어 발생한 분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 구심적 역할을 해 세계적 중요 국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한마디로 ‘집터’가 좋아서 ‘이 집터’가 ‘이집트’가 되었다

고 한다면 지나친 말장난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집트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조약 체결로 중동 평화 유지의 핵심 국가로서 미국의 관심 국가 중 하나이다. 이는 이집트가 아랍 국가들 중 이스라엘과 유일하게 평화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 경제적인 면에서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집트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집트 역사적으로 침략이나 식민 지배 대상이 되어 유럽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이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국제화된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대사관 수가 워싱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을 보면 모든 나라가 ‘이 집터’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중국은 이집트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고자 아중공 국가의 70개에 가까운 표를 겨냥하여 지역 내 가장 영향력이 큰 이집트를 핵심 국가로 여기며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국과 이집트의 외교 관계는 늦게 수립됐다. 하지만 오늘날 이집트가 민주주의 국가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와 이집트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모범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로서 이전보다 더 가깝게 느껴면서 살아야 한다.

일시 정지

## 가을,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다



절기상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 진다는 추분(秋分)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름 내내 뜨거운 햇살을 피해 냉방이 되는 실내에만 있었던 우리학교 학생들도 선선한 가을바람을 즐기기 위해 삼삼오오 무리지어 노천이나 나무의 자에 모이기 시작했다.

웃고 떠드는 학생들 사이로 조용하지만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인다. 가을바람을 느끼며 야외에서 책을 읽는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야 말로 하늘은 높고 말을 살피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마음을 살피우는 사람들이 아닐까.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지난호를 말한다 | 김소연(중국·중국지역학 11)

지난호를 말한다 | 박범수(동유럽·노어 08)

## 더 좋은 학보를 위해

952호에서는 올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올림픽과 관련한 소식이 많았다. 특히 이전에 학보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외국인 학생들의 인터뷰가 실려서 신선했다. 외국인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일원인 만큼 외국인 학생들의 목소리도 학보에서 자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패럴림픽에 관한 기사는 언론이 조명하지 않은 곳을 비추주었다.

외발주가 유명기후와 되고 집행부원들이 해산되었다는 내용을 실은 기사는 다소 충격적이었다. 학생들을 위해 뛰어야 할 외발주 부원들이 해산되었다는 소식도 놀라웠지만 그기간이 무려 반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사실에 더 많이 놀랐다. 이렇게 학교의 심각한 문제를 학보에서 다루주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외발주의 추후 계획이 어찌 될지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도 잘 다루주기를 기대한다.

우리 학교 운동장을 심층기획으로 삼은 기사는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충분히 공감할만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학생들이 운동장에 가지고 있는 고충들을 들어볼 수 있어서 유익했지만,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운동장 사용문제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다. 학교

측의 문제를 막으려 둘러대는 말이 아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글로벌캠퍼스 앞의 주거문제를 다른 기사 또한 그동안 잘 몰랐던 자취학생들의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이 역시 학교측의 방책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았고 우리 학교 주거문제 기사와 지면 마지막 부분의 3개 대학의 관련 기사가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어진 느낌이 들었다. 차라리 두 개의 기사를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 학교 측의 대책을 촉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나 지난 호에서는 곳곳에 빈칸이 많이 보였다. 학보를 독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백지로 남겨두었다고 했는데, 이 백지기가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데는 꽤 관철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캠퍼스에 선선한 바람이 찾아왔다. 새로 시작한 2학기에는 독자들들과 더욱 소통하고 독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의 학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여론 형성이 가능한 학보가 되길

지난 호에서는 학생 구성원들의 소식과 학교 소식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었다. 1면에서 여름을 뜨겁게 달군 올림픽 이후 패럴림픽을 통해 바라본 우리 사회와 언론에 대한 기사는 대학생이라면 꼭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였다.

1면 외에도 △국가장학금 선발 기준에 대해 비판한 만평 △‘마녀사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칼럼 △착한 ‘허브 더 카페’는 매우 건강하면서도 꼭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문동의 외발주 문제 △글로벌 캠퍼스 학생회관 수해 문제 등의 기사와 의견 개진은 대학생이라면 문제의식을 가질 법한 이야기들이였다.

하지만 좋은 내용과 다르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 텅 빈 ‘지난 호를 말한다’와 관련한 사실 ‘당신은 외대학보의 동반자입니다’를 읽으며 쓸쓸한 생각이 들었다. 몇 년간 학보를 빠짐없이 챙겨보는 독자로서, 좋은 기사들이 학우들 속에 퍼뜨려 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아쉽다.

현재 외대학보는 학우들 사이의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와도 여론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필자는 좋은 기사들을 볼 때마다 ‘외대학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친구들이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물론 학보가 페이스 북과 홈페이지 등을 개편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SNS(소셜미디어)를 활용하면 접근이 용이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 빈도수가 많은 대학생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 발 더 나아가 학보가 나오는 주마다 대자보에 이번 학보의 주요 내용을 홍보해 자연스럽게 이슈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생각해 봤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학보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행 당일 신문을 들고 직접 등교하는 학우들에게 신문을 나눠주고, 가관 홍보를 할 수도 있겠다.

지난호를 보며 다시 한번 학보가 더 많은 학생들 속에서 사랑 받는 신문이 되기를 생각해 봤다. 앞으로 외대학보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동반자가 되기 바라며, 나 또한 항상 챙겨 보며 좋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이다.



## 비둘기 칠판

서울배움터에서 온 편지



▲ 인도 유학 중 형과 같이 찍은 사진. 안경 쓴 이가 글쓴이다.

To. 진형이 형

인도어과 08학번 조진형! 나 누구게? 단짝 재영이야. 인도는 잘 도착했어?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시골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나 궁금다. 우리 함께 인도를 갔다 온 지 1년째야. 제대하고 형과 함께 타국에서 같은 방 쓰면서 여행도 가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며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형은 나머지 공부를 하려고 다시 인도로 떠났네. 학과 대표로 있는 동안 형이 함께 있어주어 든든했다. 그 든든함이 오늘따라 나한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네. 개강을 맞아 바쁘게 돌아가는 학교생활 와중에도 형이 떠난 자리가 커다란 공허함이 되어 내 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이 꾸는 모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고국에서 형에게 그리움을 날려 보낸다. Miss you.

From. 박재영 (동양어 · 인도어 08)

### 글로벌캠퍼스는 기고가 없어

이번 호에 실리지 않습니다.

비둘기 칠판에선 고맙고 사랑하는 분께 보내는 편지를 실어드립니다. 받는 사람은 군대 간 학우, 유학 간 학우, 졸업생, 휴학생, 빵차 아저씨, 교수님 등 우리 학교 사람 누구나 가능합니다. 학교 신문을 통해 조금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편지분량

한글 기준 4~7줄(엔터 없이), 띄어쓰기 포함 200자~400자, 원고지 기준 1매~2매

#### 기고방식

△캠퍼스 △학부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를 포함한 편지글을 86healing@hufs.ac.kr로 보내주세요.

담당자 임채운 기자



##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 독자기고

동문의 소리(9매) / 지난호를 말하다(7매) / 비둘기 칠판(3매)의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선물도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 ■ 학보우체국

교환학생, 군대 간 친구 등 외대학보를 받기 힘든 이들에게 학보를 보내드립니다.

#### 소정의 선물

원고료 - 외대생 5,000원 / 매  
교직원, 동문 10,000원 / 매  
(1매 = 200자 원고지)

■ 증정품 - 매호 추첨을 통해 텀블러를 드립니다.

■ 십자말풀이

추첨을 통해 6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or www.oedaehagbo.com  
연락처 ·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외대학보 · 서울 국제학사 401호 · 글로벌 학생회관 212호  
편집장 강유나(영어 · 영어 11) 84yoonah@hufs.ac.kr

### 십자말풀이

"학보를 꼼꼼히 읽으면 답이 보인다"

①		①		③		③			
									④
		②		②					
									⑤
			④						
								⑤ ⑥	

#### 가로열쇠

- 방승인 겸 가수 배철수가 속해 있던 대한민국 록 밴드 대표 곡으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있다.
- 유럽 서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수도는 마드리드다.
- 우리학교 동문으로 현재 이집트 한국 대사다. <100년 참조>
- 거리의 조명이나 교통의 안전, 또는 미관 따위를 위하여 길기를 따라 설치해 놓은 등.
- O!N interview면에 실린 인물로 MBC플러스미디어 대표이사다. <12면 참조>

#### 세로열쇠

- 이행 가능성, 예산 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추구하는 공약이행운동 <1면 참조>
- 우연히 만난 두 청년의 좌충우돌 인도여행기. 갑툭 쿼과극에 실린 연극이기도 하다. <8면 참조>
- '탄산나트륨'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정제, 살균한 물에 이산화탄소를 혼합하여 충전하고 마개를 막은 청량음료로 00수가 있다.
- 중국 삼국시대 때 손권과 유비가 손을 잡고 조조의 백관대군을 물리친 전투.
- 현재 국문학번역원 이사로 활동중인 서울배움터 중국어대학 교수. <9면 참조>
- 경상북도 동북쪽에 있는 시. 이곳에 도산 서원, 봉정사, 하회마을 등이 있다.

### 사설

## 외대학보의 자부심

2012년 외대학보는 우리학교 발전의 중심에 서있다. 본지는 지난 1학기 개강호 사설에서 대학의 존재 이유를 '연구와 교육'이라 규정하고, 대학신문의 역할 또한 '연구와 교육' 관련 기사를 강화함으로써 학교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 뒤, 4월 4일자 948호 사설에서는 한국의대가 지난 58년 역사에서 쌓은 대한민국 대표대학의 위업을 넘어 전 세계 학문과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대학으로 도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지는 5월 8일자 949호 사설에서는 58세 나이에 노벨상을 수상한 17명의 지성을 소개하면서 개교 58주년을 맞는 우리 대학이 노벨상 수상 업적에 버금갈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우리 대학이 나아갈 방향을 제안한 본지의 편집 방향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번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우리 학교는 전 세계 300위권에 진입하는 쾌거를 올렸다. 이는 지난 달 QS에서 실시한 현대어문학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34위를 차지한 것과 더불어 우리학교가 더 이상 국내에서 경쟁하는 대학이 아니라 세계무대에서 경쟁하는 대학임을 보여준다.

10년 전 쯤, 국내 대학들이 연구력 강화를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기 직전, 세계 300위권에 머물렀던 서울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전 세계 50위권 또는 100위권에 들어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학교의 58년 역사에서 전 세계 학문과 교육을 선도하는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리라는 기대감이 지금만큼 높았던 일이 없다. 그리고 외대학보 역사상 금년 한해처럼 연구와 교육에 대한 기사를 강화했던 일도 없었다. 이번 호에서도 외대학보는 우리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번역철학과 중국문학 분야의 국제적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학생들의 교육과 관련된 기사를 강화하였다. 변화하는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본지의 변화된 편집방향에 대학신문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우리학교의 발전을 주도하는 계기를 마련하리라 확신한다.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나아가는 우리학교의 미래야말로 외대학보의 자부심이다.

##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2012년 12월 19일(수).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세 후보가 대선 주자로 나섰다. 이들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에 대한 온갖 정치적 분석이 속속 기사화된다. 세 후보의 어깨 위에 향후 5년 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다.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당선된 후보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잠시 거꾸로 생각해 보자. 세 후보는 선거 유세를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할까. 그들은 국민 전체의 여론을 고려해 자신들의 동선을 계획한다.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여론에 따라 국립 현충원에 방문해 참배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여론에 맞춰 각종 경제 특구를 방문한다. 아무리 짧은 연설이라도 그 연설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 연설에 반영한다. 국민들이 세 후보를 움직이는 원동력인 것이다. 결국 어떤 후보가 당선된다 할지라도 유권자이자 원동력인 국민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뒤따르는 셈이다.

대선뿐 만이 아니다. 유권자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유권자 학생이 원하는 정책이 후보자로 나온 학생의 공약에 반영되고, 유권자 학생의 반응이 바로 후보자 학생의 연설을 바꾼다. 그렇다면 유권자 학생의 무관심이 후보자 학생의 당선 후 공약 이행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예상일까.

본지는 이번호 1면의 탐기사와 빈의자에서 밝혔듯 총학생회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 학생들도 이뤄진 공약 이행 평가단이 구성될 것이다. 하지만 평가단에 속한 학생 뿐 아니라 평가단 밖 학생의 관심도 필요하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유권자 학생, 바로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 지난호 십자말풀이 당첨자

#### 서울배움터

전건호(사회 · 정외 10)  
심애리(사회 · 자전 09)

#### 글로벌캠퍼스

이지연(통번역 · 중국어 12)  
박효선(자연 · 통계 12)  
김한울(동유럽 · 세코어 11)

##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강유나 부장 문나운 우보연 홍규원

정기자 권수정 김경보 김계선 김정원 박준서 신민지 양재상 유상민

이민정 이은결 임채운 홍진아

교이현주 정진경

제작 (주)경보기획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트위터 @hufspress1955

MBC 예능의 대표 안우정 선배(영어·영어 79)를 만나다

#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응답하라



이번 해 초 MBC 방송국 파업으로 국민예능인 '무한도전'이 24주 동안 결방됐다. 그 어느 파업 때보다 시청자들은 '무한도전'의 결방에 주목하고 서명운동이나 다양한 SNS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의 정상 방영을 바랐다. 즉, MBC 예능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굳건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 MBC예능에 28년 동안 몸담아 오시며 MBC의 △무한도전 △황금어장 △나는 가수다 등의 걸출한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우리학교 선배가 있다. 바로 지금은 MBC플러스미디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우리학교 안우정 선배(영어 영어 79)다.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아는 그에게 프로그램 제작의 숨은 일화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들어봤다.

**Q.** 프로듀서 이후 예능 국장, 본부장을 역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무슨일을 하신 건가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리란 확신 있었죠”**

**A.** 국장이나 본부장 때에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의 역할만큼 중요한데요, 계획된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제작 승인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국장의 생각에 따라 프로그램의 존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듀서만큼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담당 프로듀서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존의 흐름과 다르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이 있었나요?

**A.**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맞춰 프로그램 하나를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졌고, 신설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는 것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프로그램을 한 프로듀서가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무한도전은 정형화된 틀이 존재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니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듀서가 돌아가며 맡는 기존의 양식을 깨고 한 프로듀서가 계속 프로그램을 맡는 식의 새로운 의견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무한도전은 김태호 프로듀서의 관리 아래 7년 동안 장수하는 국민예능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게 됐죠.

**A.** 저도 처음부터 프로그램이 잘 될 거라고 확신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꾸준한 의심을 해본 겁니다. 방송계에 종사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지만 여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란 걸 명심하고 계속 의심해 봐야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나 여론의 한 면만 보기보다는 의심하며 앞뒤를 검토해봐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정확한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야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론이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의 것에 대한 의심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를 두려워하기만 하면 당연히 발전이 없겠죠. 저도 의심하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무한도전이나 가수와 같은 프로그램은 계속 방송되지 못했을 거예요.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힘을 가지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셈이죠.

**Q.** 안녕하세요, 안우정 선배님! MBC 방송국에 프로듀서로 입사한 이래로 28년 동안이나 방송계에 몸담으셨네요. 지금은 MBC플러스미디어 대표이사로 활발히 활동 중이신데요. 처음 방송국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저는 삶에는 재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웃음). 예능은 사람들에게 삶의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능이 삶에 재미있어야 한다는 제 생각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능국에 입사하게 된 것이죠.



▲ 위에서부터 '무한도전', '나는 가수다'의 한 장면

**“프로듀서는 시청자들을 이끄는 창도자가 되야”**

**Q.** 예능국 안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특히 프로듀서를 선택하셨는데요. 선배님이 보시는 프로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 프로듀서는 대중에게 자신의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득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 담당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억울해 했어요. 자신들의 의도를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이죠. 하지만 프로듀서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이 보고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들을 바람직한 쪽으로 발전하게 이끌어 주는 창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프로듀서는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의 모든 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셈입니다.

**Q.** 예능만을 바라보고 방송국에 지원하신 만큼 예능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렇다면 프로듀서 시절에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 주세요.

**A.** 요즘 대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아빠 세대들은 잘 알고 있는 '물레카메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80년대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었죠. 또한 예능 중에서도 음악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아서 요즘으로 따지면 '쇼!음악중심'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한 적이 있죠. '라라라'라고 아실지 모르겠네요.

**Q.** 부국장 시절부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관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프로그램과 연관된 일화는 없나요?

**A.** 무한도전이 오늘날 국민예능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두 번의 고비가 있었어요. 처음에 무한도전이 시청률이 계속 낮아서 프로그램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압도적이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프로그램에 또 다른 면이 있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 했죠. 기다린 결과 무한도전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비였던 셈이에요. 두 번째 고비는 프로듀서 인사 과정의 문제에서 발생했습니다. 김태호 프로듀서가 2년 정도 무한도전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김태호 프로듀서가 다른 프로그램을 맡도록 해줘라, 한 프로그램만 계속하면 그 프로듀서를 망치는 길이다"라고 말했어요. 당시엔 한 프로그램을 한 프로듀서가 계속 맡는 일이 없었고 이것이 방송계에서의 주된 생각이었으니까요. 김태호 프로듀서 당시자까지도 바뀌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김태호 프로듀서를 직접 불러서 18년 예능피디 선배로서 조언했죠. "내가 너라면 무한도전을 10년 하겠다"라고요.

**Q.** 지금의 무한도전은 선배님의 숨은 공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였군요. 그렇다면 무한도전 외에 관리했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A.** '나는 가수다'이하 '나 가수'라는 프로그램에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초기 '나 가수'에서 김건모 사건이 터졌을 때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모든 여론이 프로그램 폐지와 담당 프로듀서 퇴진을 외쳤어요. 그렇게 단말화 된 여론은 방송계 생활 내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론과는 생각이 달랐어요.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돼 실력 있는 무명가수가 조명 받을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나 가수 계속 방송 내라, 그 이후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굳은 의지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니 결국에는 대한민국 여론이 변했습니다. '나 가수' 방송 이전의 가요계보다 방송 이후의 가요계가 보다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은 거죠.

**Q.** 앞서 설명해주신 무한도전이나 '나 가수' 프로그램이 이제는 목적인 프로그램이 됐지만 초기에 폐지논란이 있을 정도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선배님께서 이 프로그램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나요?

**Q.** 마지막으로 방송계에 입문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인생을 더 많이 산 선배로서 세상이 앞으로 바뀔 거라는 걸 후배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능 프로그램 경향을 봅시다. 예능 초기에는 음악쇼가 대세였어요. 80년대에는 '물레카메라'가 유명했고 90년대에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2000년대 중반부터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지 않은 '포맷리스(FORMATLESS)' 프로그램이 주를 이뤘죠.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계속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도 '만물은 유전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변한다는 것이죠. 이를 깨닫고 후배들이 대비해줄길 바라요. 또 다른 당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지나친 확신을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만사에 균형잡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편협한 생각,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넓게 보세요. 손바닥을 가까이 보면 손금이 안 보이는 것처럼 편협한 생각에 갇히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글 홍진아 기자 86jinah@hufs.ac.kr  
사진 이은결 기자 86leg@hufs.ac.kr

※ MBC플러스미디어 : 케이블 위성 IPTV 등 뉴미디어 방송 전문 회사로 △MBC드라마넷 △MBC에브리원 △MBC스포츠플러스 △MBC라이프 △MBC뮤직 등 총 5개 채널을 가진 MBC미디어 그룹. 5개의 장르에 걸쳐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약 력〉	
1984년	한국외대 영어학과 졸업 MBC TV제작국 입사
1999년	MBC 예능국 예능특임 1CP
2000년	MBC 예능국 프로듀서
2005년	MBC 예능국 부국장
2008년	MBC 예능국장
2011년	MBC 예능본부장
2012년	MBC플러스미디어 대표이사